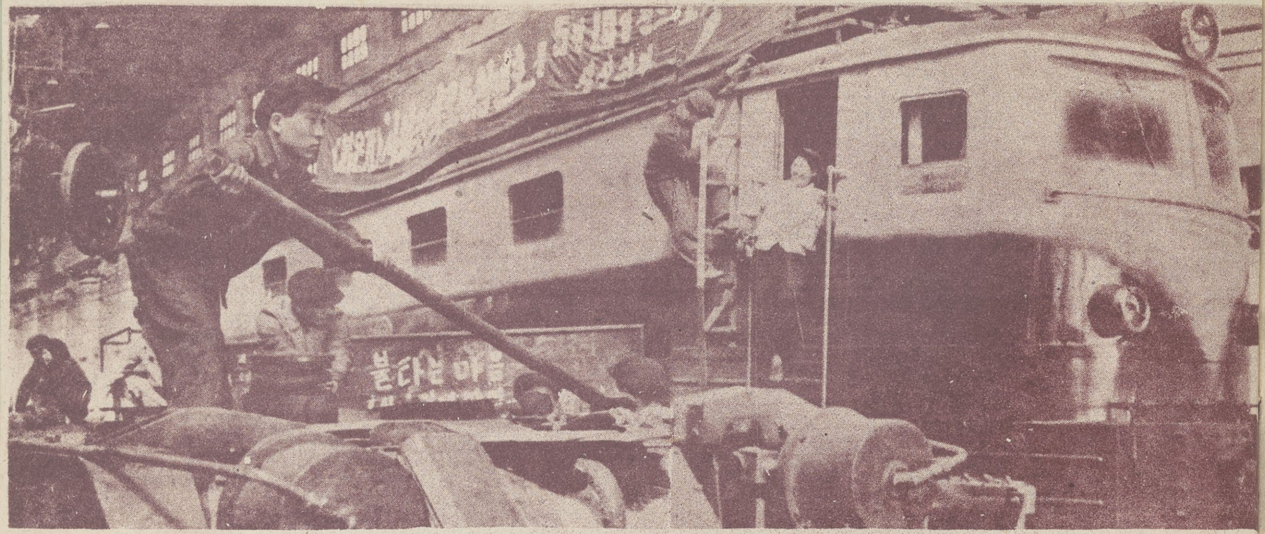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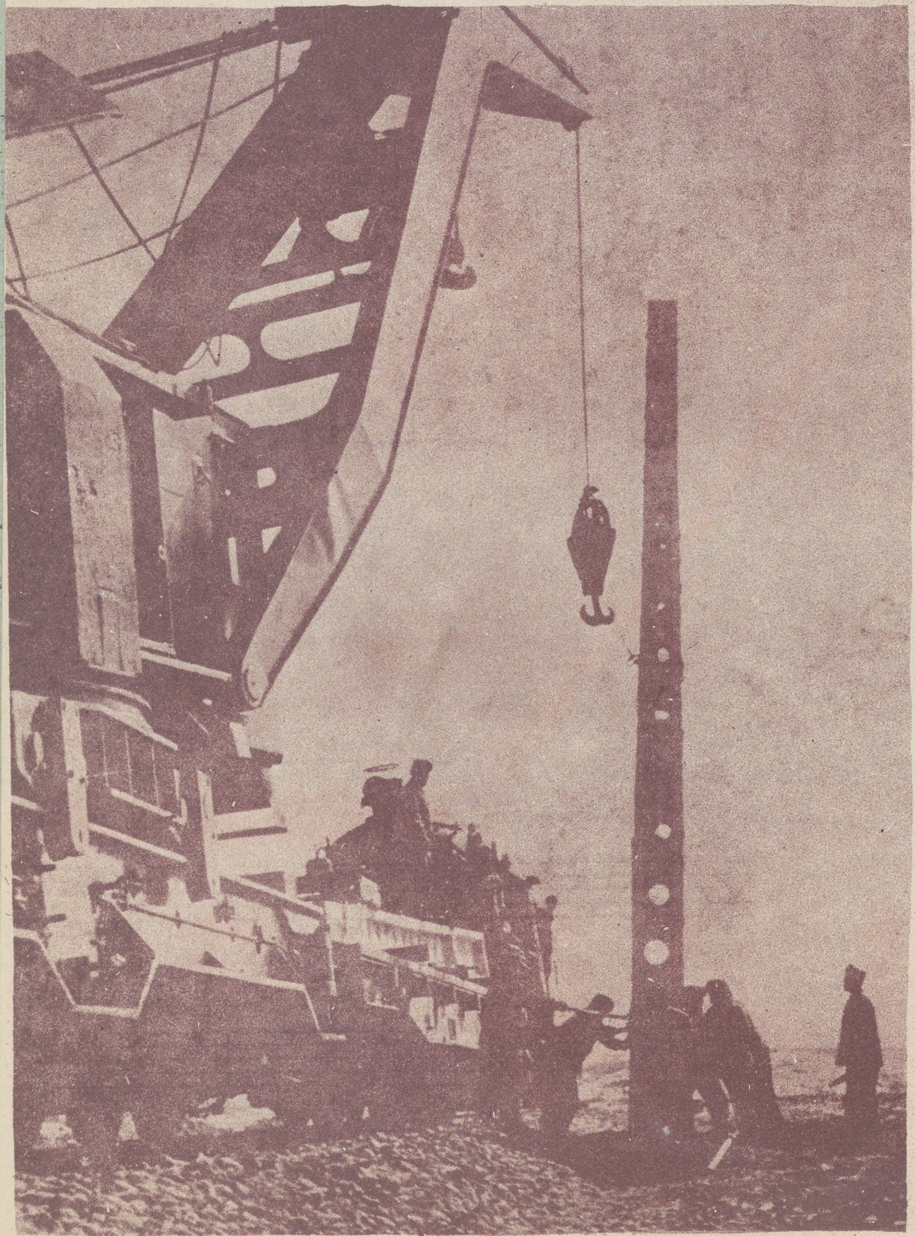
민청제 5 차대회 기념 특집

청년생활

5

1964





전기 기관차 《붉은 기 사회주의 로동 청년호》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으면서 자기들의 창조적 정열과 지혜를 담은 《붉은 기 사회주의 로동 청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청춘들의 보람찬 일터, 철도 전기화 공사장— 머지 않아 이 철길 우로는 전기 철마가 힘차게 달릴 것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76)



1964. 5



차 례

민청 제5차 대회 기념 특집

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의 력사적 사변 …………(4)

정론 **전투적 행로** ……………김 학연, 한 희만(8)

민청의 력사에서 ……………………………………… (10, 11, 13, 14)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아래서……………………… 박 형일(16)

재일 조선 청년들의 애국 운동……………………… 박 치석(18)

회의장 드높은 연단을 향하여 (시) ………………… 윤 승틀(15)

해가 솟는다 (시) …………………………………… 장 부룩(15)

혁명은 파도와 같다 ………………………………박 우섭(20)

그 후의 1 년……………………………………… 김 학일(30)

철도 전기화 공사장에서 온 소식……………………리 병훈(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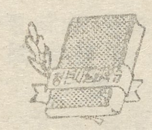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의 기업적 방법 …………………………………김 창실(23)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 리 종수(25)

소설 공산당원(청년 전위 〈하〉에서) ………………………… 림 춘추(33)

혁명 전사의 락관주의 ………………………………………… 리 형우(48)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리 재경(61)

어려운 한'자 말을 쓰지 말자……………………………박 수영(46)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기도를 분쇄하자……………………민 수일(51)

합성 수지의 세계……………………………………………김 웅기(55)

남부 월남에서 녹아난 미제의 절망적 발악……………………송 선학(58)

《청년 생활》 소사전

남조선 앞뒤골목

귀신을 업어 들이는 자들…………………………… (54)

《…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고 준비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교양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여 있었습니다.》 (김 일성)

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의 력사적 사변

전체 민청원들이 그처럼 흥분된 심정과 높은 혁명적 열의로 맞이하는 민청 제 5 차 대회의 날이 박두하였다.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 온 력사를 돌이켜 볼 때 지나온 모든 대회들은 청년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그가 소집되는 환경으로 보나 대회의 사업으로 보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회들 보다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집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천리마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및 제 8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과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보다 휘황한 미래를 확신 있게 내다 보면서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국제 정세도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국제 무대 우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력량을 압도하면서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피압박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날로 앙양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세력들은 자기들의 멸망이 가까와 올수록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더욱 광포하고 악랄하게 감행하여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소집되는 민청 제 5 차 대회는 당의 령도 밑에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행로를 총화하고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청년 동맹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는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달성한 거대한 업적과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조선 청년들의 전투적 위력을 유감없이 시위하게 될 것이며 조선 혁명 수행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 한층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회는 또한 우리 혁명의 새 임무에 적응하게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함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리정표로 될 것이다.

금번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 청년들이 걷고 있는 길을 항상 주시하면서 거기에서 항상 자기들의 미래를 찾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할 것이며 재일 조선 청년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조선 청년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민청 제 5 차 대회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무한한 감격과 들끓는 정치적 열의로써 맞이한다. 그들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민청 중앙 위원회가 발표한 호소문을 접수하고 뜻깊은 금번 대회를 보다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창조적 정열과 힘과 지혜를 바쳐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평양—신의주 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철도 전기화 속도》를, 평양 화력 발전소 공무 직장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2월 말 현재 상반년 계획을 104%로 초과 완수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청원들이 대회 전에 벌써 자기의 년간 계획 또는 상반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민청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이 제시한 지, 덕, 체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회를 앞두고 우리 나라 청소년들 속에서 광범히 벌어진 좋은 일하기 운동 과정은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단련된 우리 시대 젊은 세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더욱 뚜렷이 보여 주었다.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 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혁명 투쟁에서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일군으로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성)

대회를 앞두고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발휘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바로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조선 청년들의 열렬한 충성심,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그들의 숭고한 품성의 명백한 표현이다.

민주 청년 동맹은 창건 첫날부터 언제나 당과 수령이 부르는 길에서 그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민주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민주 기지 창설을 강화하는 보람찬 투쟁에

> 《누가 기술 발전에서 선봉으로 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새 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보수주의와 투쟁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
> (김 일성)

적극 참가하여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웠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수십만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장에 아로새기고 공장과 농촌으로, 탄광과 광산으로, 발전소와 철도 건설장으로, 바다와 벌목장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 갔으며 거기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는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찬연히 솟아 오른 력사적 창조물들에 자기들의 땀과 로력적 위훈이 깃들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며 조직은 투쟁 속에서 성장한다. 민주 청년 동맹은 당의 위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투쟁 속에서 250 여 만의 각계 각층 청년들을 튼튼히 결속한 전투적 대오로,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된 혁명적 대오로 장성 강화되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민청 내에 혁명적 사업 체계와 혁명적 사업 방법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민주 청년 동맹은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된 조선 청년들의 강유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되였으며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기에 준비된 견결한 혁명 전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고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의 변화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이 그들 앞에 제기하는 임무에 상응하게 민주 청년 동맹을 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한다. 민주 청년 동맹의 전투적 행로를 총화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는 것은 조선 청년 운동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민청을 창건하면서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기치 밑에 단결시켜 그들의 애국적 력량을 민주 혁명과 민주 건설에 적극 동원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모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이끌고 나갈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이 방침은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매 시기에 민청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활동 방향과 사업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으며 청년 사업을 위해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특히 청년 사업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은 민청의 모든 활동의 강령적 지침으로, 청년 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바로 여기에 민청의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나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민주 청년 동맹을 직접 창건하고 육성하여 주었으며 우리 청년들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 주신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게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기치를 따라 확고 부동하게 전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 당은 지금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특히 기술, 문화, 사상 혁명에서 청년 동맹과 전체 청년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전 조선 청년들의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 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 총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의 이 두터운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은 없다.

이제 력사적인 우리 대회에서는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청년들 앞에 제기된 과업이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될 것이다.

> 《원대한 전망과 높은 리상을 가지는 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특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건전한 사상과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낡은 유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
> 우리의 청년들은 모두가 다 승리에 대한 락관과 미래에 대한 광명한 전망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일성)

지금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맹원으로 되는 영예와 자랑도 높이 력사적인 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혁명 위업 수행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자기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자신을 공산주의 붉은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그가 가리키는 길에 끝까지 충직하며 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 청년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조선 청년 운동의 력사에 새로운 업적을 기록할 것이다.

정론

전투적 행로

김 학연, 한 희만

길, 우리의 땅 우에는 무수한 길이 열려 있다. 공장으로 열린 길, 농장으로 뻗은 길, 두메의 언덕 길, 벌방의 큰길, 거리의 대통로들…

우리는 이 모든 길을 때로는 바삐, 때로는 총총히 걸어 가고 걸어 오고 하면서도 흔히는 그 길의 내력에 대하여, 그 길에 깃든 사연에 대하여 무심하기가 일수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의 길에 굽이쳐 온 위대한 생활의 흐름을 두고 우리 어찌 무심할 수 있겠는가!

높은 철탑 우에서 용접의 불꽃을 날리는 동무여! 그대가 오른 길을 잠시 굽어 보시라!

대지 우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달리는 천마의 젊은 주인들이여! 그대 달려 온 길을 잠시 살펴 보시라!

공장의 큰 문을 향하여 출근의 걸음을 다그치는 동무들이여!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다 보시라!

그대들이 걸어 온 그 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력사적인 민청 제 5 차 대회의 날이 다가왔다. 제 4 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어언 8년이 지나 갔다. 우리가 달려 온 이 8 년의 전투적 행로를 생각해 보자.

조국이 걸어 온 그 유구한 력사에 비길 때 그것은 세월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해방 후 우리가 달려 온 그 장엄하고 거창한 시대의 흐름에 비길 때 그것은 그의 반도 못되는 시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의 사회와 자연과 인간은 그 얼마나 변하였으며 이 위대한 변혁 속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춘의 대오는 그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1)

길에 대하여 우리는 또 말하자! 1956년 11월, 민청 제 4 차 대회에 참가했던 894명의 대표들은 그 어떤 새로운 미지로를, 그 어떤 새로운 생활의 언덕을 넘어 설 그러한 심정을 안고 대회장에서 나와 제각기 자기의 초소들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 길에서 문득 동상 초엽구의 깊은 골짜기에서 공청 사업에 대한 그이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적구로, 근거지로 향해 가던 공청원들과 나란히 걷는 듯한 자기 자신을 느꼈다. 또 그들은 이 길에서 가렬한 전쟁 시기 지하의 회의장에서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또다시 멸적의 전선으로 떠나가던 용사들과 나란히 걷는 듯한 자기 자신을 느꼈다.

어찌 그들 뿐이였으랴! 150만 민청원들과 전국의 청년들이 바로 그렇게, 그러한 심정을 안고, 그러한 결심을 다지면서 저마다 자기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 길에서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온갖 시련과 난관과 원수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면서 첫 5개년 계획의 높은 언덕을 넘었으며 이 길에서 혁명의 붉은 기를 휘날리며 천리마의 승리적 진군을 다그쳐 왔다. 김책과 강선의 용해공들은 6만 톤이 아니라 27만 톤의 선철을 뽑아 내였다. 이 몇개의 수'자를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 어떤 고등 수학의 방정식으로도, 그 어떤 정밀한 계산기의 계지로도 그 것만은 도저히 풀 수 없다. 오직 그것을 푸는 데는 유일한 가산틀이 있으니, 그것은 로동당 시대 청춘들의 혁명 정신, 그 붉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대회 후의 나날은 거세찬 창조와 혁신의 물'결 속에 흘러 갔으며 이 물'결 속에서 청년들은 저마다 위훈의 길을 걸었다.

이 길 우에서 청년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한 것은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였다.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 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다.》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처럼 일떠선 전국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 갔다. 70여 만 명의 청년들이 탄광, 광산, 발전소 건설장으로 진출했으며 40여 만 명의 청년들이 농촌에 진출하였다.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처럼 푸른 하늘에 거연히 솟은 청년 언제 우에 지금 한 젊은이가 서 있다. 그는 청년 타입공 박 선곤 동무이다.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서 있는가?

그도 지금 자신이 걸어 온 길을 살펴 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걸어 온 길인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위훈이 새겨진 길인가! 그들이 이 곳에 온 이후 우리의 유성은 태양을 겨우 일곱번 밖에 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의 신비와 조화의 힘을 그처럼 자랑하던 자연은 그 사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변하고 또 변했으며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바다처럼 물이 출렁이는 푸른 호수, 구름길에 높이 솟은 불락의 성곽같은 청년 언제! 지구 우에 산지대와 골짜기가 생기고 바다가 생긴 지각의 력사의 제 3 기 말~제 4 기 초부터 곧장 한 곳으로만 흘렀을 이 장강의 굽이침이 이제는 거꾸로 흘러 아아한 산맥을 타고 새로운 강과 합류되여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 예'날 일제는 얼마나 많은 나날을 잡고 이 자연을 탐내여 정복을 망상했던가!

언제 우에 선 청년의 눈 앞에 문득 7년전 그날이 떠올랐다. 민청 파견장을 퇴품는 가슴에 지닌 600여 명의 첫 건설 부대가 이 험산준령'길에 다달았을 때, 그 때엔 다만 장창한 호수도 높은 철탑들도, 줄줄이 뻗어 간 고압선들도 모두가 한낱 그의 꿈속에, 그의 리상 속에만 있었다. 그 꿈과 리상이 어떻게 오늘은 그들의 생활로, 위대한 현실로 변할수 있었는가!

해발 1,400 메터를 넘는 고지의 겨울 날씨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펌프의 물도 순식간에 땡땡 얼어 붙을 정도로 혹독하였다. 그러나 청년 건설자들은 항일 선렬들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얼음물에 뛰여 들어 500명이 4 개월을 걸려야 하는 가물매기를 단 100명이서 한달 동안에 끝마치였다. 세계 발전소 건설 력사에 그 전례가 없는 대 단층맥을 성과적으로 극복한 것도 바로 그들이였다.

랑림의 암벽에 수로를 뚫을 때 높이 70 메터, 길이 60 메터의 큰 붕락 구간이 생겨 수로 굴착에 큰 난관이 조성되였다. 박 두화, 리 병삼 등 불사조 돌격대원들은 무시로 돌이 떨어지는 붕락된 천정을 향하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 가 바'줄에 허공 매달려 착암 작업을 드리댔다. 바로 그 찰나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어찌할 것인가?

가슴이 덜컹 내려 앉은 70여 명 돌격대원들은 서로 붙안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람들이여! 놀라지 말라! 박 두화, 리 병삼 동무들은 혁명 가요를 높이 부르며 그대로 허공에 매달린채 착암기를 휘둘으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 왔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길을 걸어오면서 즐겨 부른 노래가 있다.

아 빛나는 청춘이여!
가슴에 넘치는 행복이여!
아침 노을 하늘'가에 붉게 물들고
진달래는 산에 들에 만발하여도

그대 아름다움,
로동의 나날에 꽃핀다네,
그대 환희
창조의 불'길 속에 넘친다네.

참말로 로동의 위훈 속에서, 창조의 불'길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성장하였다.

지금 언제 우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 온 길을 살펴 보며 회상에 잠겼던 박 선곤 동무도 그 때엔 소중을 갓 졸업한 애숭이였다. 그러나 지금 눈여겨 보라! 이마 우에 드리웠던 머리'발은 어느덧 뒤로 넘어 가고 그의 가슴은 드세게 넓어졌다. 인간 성장의 척도는 이에 그칠 수 없다. 그는 오늘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당당한 타입공이다.

독자들이여!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시대의 가까운 몇해 전을 이렇게 옛말처럼 회고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번엔 우리 함께 저 유명한 송남'길을 걸어 보자!

송남 청년 탄광 개발 당시 이 산맥에서 가까운 한 마을의 녀 교원은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미륵령 기슭에서 조국의 지도를 펴놓고 야외 교수를 했었다. 얼굴 그대로가 둥근 달처럼 환한 녀선생은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송남 땅을 찾아 보세요.》

《선생님, 암만해도 찾을 수 없는 데요.》 한참 후에야 대답하는 아이들의 서운한 목소리…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50만 분지 1의 지도에 이 산골짝은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몇해 후이면 여기에 큰 도시와 대 전차갱을 건설하고 송남이란 커다란 이름을 뚜렷하게 새길 것입니다.》

녀교원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였다. 머루, 다래 우거졌던 미륵령 기슭에 지금은 불빛 휘황한 《청춘 도시》가 솟았고 현대적인 대 전차갱이 부설되였다.

탄광 개발 당시, 그 때만 하여도 개발자들의 잠'자리는 천막 속이 였고 일터는 그대로 전장이였다. 청년들은 밀차와 철'길이 닿기 전부터 참나무 바퀴와 참나무 레루를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

그들이 걸어 온 길에서 세인을 놀래운 《승리의 봉우리 운동》과 《100 메터 고속도 굴진 바통 운동》은 먼 후세에까지 노래로 전해질 것이다.

1957 년도 다 저물어 가는 어느 날, 야외 가설 집회장에서 송남갱 민청 단체 총회가 열렸다.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연단에 뛰여 올랐다. 그들의 말마디들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하였다.

《민청원들이여! 100 메터 고속도 굴진 바통 운동에서 청년 개발자의 영예를 떨치자!》

청년들은 붉은 주먹을 추켜 들며 구호를 웨쳤다. 그들은 청춘의 피끓는 가슴에 엄숙한 결의와 사나이다운 선서를 다지며 맹세문에 차례차례 수표를 하였다. 첫 개발자의 한 사람인 리 정삼 동무는 문득 351 고지의 한 전호 속에서 열렸던 화선 민청 총회가 생각났다. (가렬한 포화를 뚫고 적진의 길을 달리며 다지던 맹세나 오늘의 우리들의 맹세나 당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충성에 그 무슨 다름이 있으랴!)

민청의 력사에서



1946년 1월 16 일~17일.

북조선 민주 청년 단체 대표자 회의 진행.

회의에서 25만 2천 5백여 명의 민청원을 대표하여 47 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회의에 친히 참석하시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북조선 위원회 결성에 제하여》라는 민주 청년 동맹과 조선 청년들의 임무를 명시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투는 시작되였다. 돌격전의 앞장에는 어제'날의 351 고지 용사였던 리 정삼 동무가 나섰다.

발파가 있은 날이였다. 그가 언뜻 천장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금이 실리고 있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위, 그런데 그 밑에서는 개발자 동무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실로 위급한 순간이였다.

정삼 동무는 동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재빠른 동작으로 성목을 쌓아 올렸다. 동무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꾹 다문 입, 이글거리는 눈빛, 마치 그는 육탄으로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한 병사와도 같이 자신의 몸으로 무너져 내리는 갱도의 운명을 구출하였다. 그리고는 고속도 굴진을 계속 힘차게 밀고 나갔다. 이 자랑찬 청춘이 바로 송남 땅의 첫 영웅이 되였다.

우리는 이렇게 깊은 땅 속까지 가슴으로 뚫고 나가며 끊임 없이 길을 내였다. 충성과 용맹의 길을 내였다.

(2)

지금 우리 앞에는 한 민청원이 입당 청원서에 기록한 글이 놓여 있다.

《…나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제도를 쓸어 없애며 조국 땅 우에 이루어진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자유로운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과 혁명이 요구한다면 나의 생명도 서슴 없이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당원으로 받아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 글의 주인은 고향 마을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자랑스럽게 바친 회경 마을의 민청원 리 병모 동무이다.

그는 항상 당 앞에서는 오직 《예》라는 대답이 있을 뿐이며 뼈가 부서져도 즉시적인 실천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당이 맡기는 혁명 과업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건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실천했으며 언제나 일에서는 힘들고 쉬움을 가리지 않고 로력 수첩에 기록되는 공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마을의 민청 위원장이였던 그는 항상 학습과 로동에서 청년들의 앞장에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 오늘의 마을과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미래를 결부시켜 생각하였으며 그에게는 그 미래가 귀중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을 그처럼 사랑했으며 그것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웠다. 바로 그러한 청년이 였기에 그는 어린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 아홉의 청춘을 아낌 없이 바칠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청춘의 아름다움을 자기 생활에서 체현한 그 많고 많은 공산주의적 붉은 꽃들 가운데의 한떨기인 리 병모 동무를 통해서만도 우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 세계의 높이를 뚜렷이 볼 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청의 력사에서



1946년 9월 29일~9월 30일.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2 차 대회 진행.

회의에는 124만 6,192명의 민청원을 대표하여 325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는 민청 창립 대회 후의 활동을 총화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서 민청 단체들이 실행하여야 할 과업을 토의 결정하였다.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민주 력량의 확대 강화를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에 대한 력사적 연설을 하시였다.

우에서 말한 회경 마을의 리 병모 동무, 룩로강 기슭의 안 영복 동무, 여원전'가의 김 정순 동무, 함흥 의대의 붉은 대학생들, 우리 어찌 그들의 이름을 이루 다 여기에 적을 수 있으랴! 천리마 시대의 장엄하고 찬란한 화원에서 피여난 새 인간, 새 성격의 붉은 꽃들인 길 확실, 리 신자, 리 만성, 김 일완 동무, 이 외에 그 많은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이름 또한 어찌 여기에 다 적을 수 있으랴!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나란이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 기록장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민청원들의 심장이 다 그들처럼 뜨거우며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것과 꼭 같은 맹원증을 자기 품에 지닌 모든 민청원들이 한결 같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

어디서건 우리는 볼 수 있다. 오늘의 청년들은 길을 걷다가 달려가는 한 대의 구급차를 보고도 걸음을 멈추고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낯모를 아이들이 귀엽게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도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며, 한 동지의 결혼에도, 이웃이 이사하는 일에도 제 일처럼 즐겨 소매를 걷고 나선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며 남의 상처를 위해 살과 피와 뼈까지 아낄 줄 모르며 한 친우의 학습을 도와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기쁘게 바친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더 빛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랐으며 또 자라고 있다.

우리는 정말 그 동안에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20여 만의 과학자, 학자,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의 대렬에서 배출되였다. 수천 수만의 청년들이 민청 조직에서 자라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오늘은 농장 관리 위원장으로, 지배인으로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간부로 성장하였다. 《황금의 예술》, 《세계 최고봉의 예술》을 온 세계에 떨친 젊은 예술인들의 자랑찬 대오, 세계 첫 《3관왕》의 영예를 빛내인 신 금단 선수를 비롯한 체육 명수들의 름름한 대렬,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눈부신 성장에 대하여 생동하게 말하여 주고 있다.

독자들은 립석 협동 농장의 최 영자 동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민청 제 4 차 대회 때만 하여도 우리는 아직 초중에 다니는 단발 머리의 그를 보았다. 그로부터 몇해 후에는 농장'벌에서 오뚤차게 일 잘하는 동발머 모내기를 잘하는 그를 보았다. 그 다음에는 마을의 민청 위원장이 되여 청년 교양에 각별히 힘쓰는 그를 보았고 또 얼마 후에는 로력 영웅으로 온 농장의 호주인 관리 위원장으로 사업하는 그를 보았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국사를 토의하는 최고 인민 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청년들은 시대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 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우리의 길에는 때로는 폭풍우도 휘몰아쳤고 때로는 험산 준령도 가로 막혔다.

준엄한 1956년의 그 나날들을 돌이켜 보라! 그 때 우리에게는 무루한 것인들 얼마나 많았고 할 일인들 얼마나 많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혁명의 원수들은 우리를 당으로부터 리탈시키려 하였다. 밖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였고 안에서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원수들의 그 어떤 간악한 준동도 우리를 결코 당의 품에서 떼여낼 수는 없었다. 원수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용감한 혁명 전사들과 한 대렬에 선 우리들, 사형장에 끌려 나가면서도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던 충직한 전우들과 한 대렬에 선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물러 설 수 있었으랴! 우리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 길을 걸었다. 혁명의 한 길을 걸으면서 한편으로 원수를 치며 한편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였다.

민청은 이 길에서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해졌으며 청년들도 이 길에서 정치 도덕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되였다. 각계 각층 청년들이 하나의 의지로 단결되고 수많은 공산주의적 청년 핵심들이 육성되였다.

사람들이여 우리 나라의 그 어느 곳이건 좋으니 찾아가 보시라! 그러면 당신들은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생기 발랄한 민청 조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민청 일'군들을 사무실과 책상 머리에서가 아니라 기대 앞에서 탄광과 배우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 왔다. 우리는 이 길에서 언제나 크나큰 사랑의 해'빛을 담뿍 받으며 걸어 왔다.

당과 수상 동지는 매 시기 나아갈 길과 해야할 일들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다. 청년 사업과 청년 교양에 대한 당과 수상 동지의 교시는 언제나 민청 사업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청년은 미래 조선의 주인이며 민주 조선 건설의 초석이다.》

《건국의 주력군은 청년이다.》

1930년 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일찌기 청년들을 사회 혁명 력량에서 가장 생기있는 한 부분으로 보신 그이…그이께서는 복잡 다단하신 정사의 짬짬에도 해주—하성의 건설장에 찾아 오셨고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처소로 찾아 오셨다.

공장과 광산, 꽃피는 협동 전야와 어느 이름 없는 산간의 오솔'길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그이께서는 아직 단꿈이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새벽 서해의 포구에 나타나시여 《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성원들의 어깨를 두드려도 주시고 북중의 한 나어린 로동자의 손을 잡고는 《이 조그만 손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고 치하도 해 주셨다. 식사는 어떠하며 건강은 어떤가고 이르는 곳마다 보살펴 주시고 때우 떨떨한 절목공 청년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황해남도 재남 협동 농장의 김 용완 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1957년 2월 24일이였어요. 그날 우리 마을에 오시였던 수상 동지께서는 문득 제의 결혼식에 오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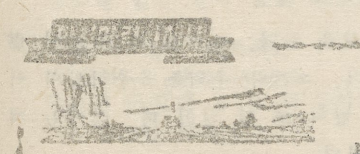
그 때 저의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1,211 고지 격전의 날에도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라는 그이의 명령을 받들고 전우들을 부둥켜 안고 목메게 그이의 노래를 부르던 일, 오매에도 잊지 못하던 수상 동지, 저는 그 수상 동지를 뵈옵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이께서는 내가 전선에서 돌아 온 제대 군인이라는 말을 들으시자 <동무들이 전선에서 원수들과 잘 싸웠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행복이 돌아 온 것이요. 얼마나 좋소!>라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나와 그리고 부끄러워 어쩔줄 모르는 나의 안해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내내 사이 좋게 지내오. 동무들의 행복을 바라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한 청년의 결혼 식장에까지 우정 찾아 오시여 행복을 축복해 주시는 그이…저는 사립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의 뒤'모습을 우러러 보며 솟구치는 눈물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우리 농장에 다시 찾아 오신 그이는 저희를 잊을 잊지 않으시고 저의 형수를 보시고 <유 동무! 잔치한 시동생이 잘 있소?>하고 물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은 우리들을 바로 이렇게도



1946년 11월 11일~14일,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3 차 대회 진행

대회에는 29,065 개의 초급 민청 단체에 망라된 130만의 민청원들을 대표하여 506 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20 명의 남조선 민애청 대표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은 민청 단체들의 기본 임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956년 11월 3일～8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4 차 대회 진행

대회에는 150만 명의 민청원을 대표한 894 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 3 차 당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11월 9일 김 일성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중앙 위원들을 친히 접견 하시고 민청의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민청 단체들이 실행하여야 할 과업들에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1958년 3월 19일.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 진행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자애롭고 넓은 품 속에 안아 키워 주시였다.

민청 제 4 차 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과 우리의 전투적 성장을 어찌 수상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서 생각할 수 있으랴!

우리는 력사적인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는 감격의 이날 당과 김 일성 동지에게 다시 한번 최대의 감사를 드린다.

× ×

우리가 걸어온 길, 그 길은 비록 저마다 서로 조소가 달라서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져 뻗어 있지만 그것은 마치 한 유기체 속에 얽힌 혈관의 분포처럼 오직 한 줄기, 오직 한 지점을 향하여 줄기차게 뻗어 있다.

새 란맥을 뚫고 넓힌 우리의 길은 《리 수복 청년 돌격대》원들의 붉은 가슴으로 열린 해주—하성과 지하리—평산의 연연한 철'길에 닿아 있으며, 그 길은 또 기적적인 《평양 속도》로 열린 조국의 심장—붉은 수도의 그 많은 대통로와 유보도에 닿아 있으며, 《백두산 청년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불굴의 힘과 노래 속에 거연히 솟은 때 비날론 공장의 구내 길에도, 그리고 또 그 길은 농장'벌 무연한 대지 우에도, 평양—신의주 간 500 리 전기 철'길 우에도 닿아 있다.

우리는 창조적 로동과 혁신의 불'길 속에 우리가 달려 오고 또 달려 온 길을 돌이켜 보며 높은 긍지와 행복감을 가지고 말하노니 사나운 태풍도, 산악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노라!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그 어떤 간악한 원수도, 청춘의 가슴을 식힐 수 없었노라!

우리에게 그 무슨 힘이 있어 그처럼 용맹을 떨치며 달려 올 수 있었는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 무슨 열이 있어 그처럼 뜨거운 열정을 안고 달려 올 수 있었는가?

자랑하노라! 우리의 길이여! 영광에 찬 로동의 나날이여! 그것은 오직 우리의 그 모든 길이 우리 당의 위대한 행군로에 닿아 있고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당이 준 심장이 끓고 있기 때문이노라! 그리고 또 우리의 앞길에 휘황한 미래, 공산주의 봄 언덕이 가까히 보여오는 때문이노라!

우리는 먼 길을 왔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이 이제 갈길이 더 멀며 또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당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기'발을 휘날리며 새 행증, 새 휘장을 가슴에 지닌 영예도 높이 더욱 힘차게, 더욱 억세게 나아갈 것이며 당과 수령 앞에 끝까지 충직할 것이다!

(시)

회의장 드높은 연단을 향하여

—민청 제 5차 대회를 맞으며—

윤 승흠

빨끈 단 용접기를 가슴에 안고
허허 대공에 높이 떴노라,
가슴과 허리엔 굵직한 안전바
허공을 대지 삼아 날아 다니는
나는 탑장수를 만드는 사람.

상승 기류가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만
더운 땀은 그대로 주루룩 흐르고
전기는 전기와 맞부딪쳐
산형강을 동강이 낸다.

가렬한 화력전인가,
여기 조국의 하늘 한가운데
천갈래 만갈래 불꽃은 피고피고
중무기의 사격인양 용접기는 울리여
철골은 이어진다. 탑장수는 일어 선다.

우리 어찌 순간을 아끼지 않으랴,
다가 오는 민청 제 5 차 대회 전으로
상반년도 우리 계획 넘치겠노라
청춘의 붉은 맹세 다지였거니.

오, 다그치자
청춘의 심장은 불타는구나!
탑장수 《탑식기—민청 제 5 차 대회》호를
어서 만들어 하늘 높이 세우자!

마지막 가름'대를 잇고 나서
우뚝 선 기중기에 붉은 기를 달고
용접면을 벗으며 보고하리라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영예가
흘러 넘치는
회의장 드높은 연단을 향하여
《〈탑식기—민청 제 5 차 대회〉호는
여기에 거연히 서 있습니다!》

(필자—평양 전설 기계 공장 로동자)

(시)

해가 솟는다

장 부록

풍년'김 푸실푸실 피여 나는
사랑하는 대지로
청년들은 떨쳐 나섰다.
논풀이 작업장은 와짝 끓는다.

기름진 흙더미엔 웃음도 가득
뜨락또르, 불도젤 씽씽 돌아가고
짐차들 쉴새 없이 꼬리 무는데

아침 해 솟아 오른다.
해'빛이 온 땅에 내린다
천갈래 만갈래 금'빛 해'살이여!
오! 황홀한 해돋이!

불'길은 세차게 타번지는데
일'손 다그치는 얼굴마다에
구슬처럼 반짝이는 땀'방울
눈 앞에 펼쳐지는 황금 파도여!

그이의 크나한 구상
활짝 꽃피워 가자고
한 때미 두 때미 풀어가는 논판에
나라를 받드는 우리의 지성
곤곤히 안아 주며 해'살 스며 든다.

손톱이 닳도록 돌밭을 파고 파도
피 눈물만 흘리던 지난 날은
해'빛조차 어둡기만 하더니
오늘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느냐
오! 미래에로 이끄는 태양!

저 앞산보다 더 높이 솟아 오를
황금산 낟가리 쌓여질 터전
어기영 치기영,
민청원의 영예 이 들판에 수놓아 간다.
검붉은 흙더미 파 제낀다.

해가 솟는다.
논풀이 작업장에 해가 솟는다.
온 몸에 불끈불끈 힘만 솟구쳐
가슴 속 내 심장도
태양처럼 활활 끓어 번진다.

(필자—개성지구 장풍군 자하 협동 농장원)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아래서

박 형 일

남조선에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학생 운동은 우여 곡절을 겪어 왔으나 부단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19년 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빚어진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와 청년 학생들의 비참한 처지는 정의감과 리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명과 건설에서의 제반 성과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였다.

해방 후 민주 운동이 앙양되었던 시기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제가 조작한 반동적 《국대안》을 반대하는 투쟁과 10월 인민 항쟁, 그리고 5. 10 망국 단선을 반대하며 공화국의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의용군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정전 후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파쑈 테로 통치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에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다.

특히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4월 인민 봉기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4월 인민 봉기와 그 이후 시기의 그들의 투쟁들은 남조선 혁명과 남조선 인민 운동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4월 인민 봉기 후부터 《신 생활 계몽 운동》과 《7. 29 선거》를 반대하는 투쟁 등 반미 반《정부》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더욱 각성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조국 통일 방안을 열렬히 지지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남북 협상 및 경제 문화 교류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1년 5월 4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발기한 《남북 학생 회담》은 남조선의 혁신계와 광범한 사회계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으며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한 군사 파쑈 독재의 수립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엄혹한 시련에 직면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그처럼 엄혹하고 야수적인 군사 파쑈 폭압 하에서도 미제의 주구인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이며 반 인민적인 제 시책과 장기 집권 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군사 정변》 직후에 박 정희 《정권》의 반동적 본질을 간파하고 직접 체험한 청년 학생들은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하면서 박 정희 도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소위 《3.16 성명》의 철회와 군정 연장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은 《군정 연장 결사 반대》, 《학원의 자유 보장》, 《구 정치인은 자숙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대중적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고려 대학 학생들은 4.19 3 주년을 계기로 《군정 연장 결사 반대》의 결의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또한 4월 인민 봉기에 참가하였던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13 개 청년 학생 단체를 망라한 《4월 혁명 총 련맹》은 박 정희의 《3.16 성명》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루차 발표하고 일련의 반 군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청년 학생들의 반 《정부》적 기세는 박 정희 도당의 소위 《민정 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더욱 표면화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박 정희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반대 배격할 뿐만 아니라 구정치인들의 재집권 책동도 견결히 반대하면서 자기들에게 배움의 길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4월 인민 봉기 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미 제국주의를 직접 반대하는 데로 점차 발전하여 갔다. 1962년 6월 남조선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 대구 대학 학생들의 반미 시위는 남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반미 감정의 폭발이였다. 학생들은 《미군의 살인 린치 폭행에 대해서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미군은 가해자의 처벌 상황을 공개하라.》, 《미국 대사를 데려 오라.》고 웨치면서 괴뢰 경찰의 탄압을 박차고 일대 가두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3년 4월 19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자주 국민이다.》, 《민족적 자주적 민주 력량을 존중하라.》,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 말라.》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고려 대학교 학생들도 4월 18일 《외세의 어떠한 작용도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정치적 자주를 완강히 요구하였다.

최근 더욱 로골화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기도와 박 정희 도당의 굴욕적 친일 정책과 관련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에서 200여 명의 청년들은 남조선에 기여 든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의 추방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대중적인 시위 투쟁이 단행되였다.

이들의 시위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 감정과 반 《정부》 감정으로 폭발된 애국적인 투쟁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남조선 전역에 급격히 파급되였다. 3월 24일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 연세 대학, 대광 고등 학교 학생들이 봉화를 올린 이 시위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목포, 군산, 춘천, 제주, 려수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지역에서 전개되였으며 이에는 20여 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금번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4월 인민 봉기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투쟁이였다.

청년 학생들의 금번의 반일 시위는 놈들이 조기 타결을 획책하여 서두르던 《한일 회담》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반일 반 《정부》 감정을 더욱 더 고취시키는 데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또한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통하여 청년 학생들은 단결하여 완강히 투쟁을 전개한다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주장하는 지향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살'길은 통일의 길 밖에 없다.》고 하면서 박 정희 도당이 내놓은 《선거 공약을 통한 통일 방안은 자유, 민주 량당 때와 대동소이하며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하다.》, 《비록 해방은 타률적이 였지만 통일만은 자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 문제가 국제 외교상의 어떤 결의로 이루어 지리라고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 문화의 교류 및 인사의 래왕 등에 대해서도 강경히 주장하여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과 특히는 김 일성 수상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간직하고 자주적인 통일만이 자기들에게 삶의 앞길을 열어 준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서는 반미, 반일, 반 《정부》적 감정이 나날이 높아 가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이 더욱 더 앙양되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이러한 지향과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되고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여 더욱 더 확대 발전되고 있다.

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사변으로 되는 민청 제 5 차 대회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하며 박 정희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을 더욱 힘 있게 고무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재일 조선 청년들의 애국 운동

박 치석

지금 일본 각지에는 10만여 명의 재일 조선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60만 재일 동포들과 함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애국 운동에 한결 같이 참가하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전개된 재일 조선 청년들의 애국 운동은 1955년부터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1955년 5월에 60만 재일 동포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한 통일 전선체인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가 결성되고 그의 지도 밑에 1955년 8월에 각계 각층의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을 망라한 대중적 민주주의 단체로서 재일 조선 청년 동맹(조청)이 조직되였다. 재일 조선 청년 동맹의 조직은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의 정치 생활과 그들의 애국주의 운동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재일 조선 청년들의 애국 운동은 정확한 로선을 따라 급격히 발전하게 되였다.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은 창건 이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 밑에 자기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재일 청소년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청은 수만 명의 각계 각층 청년들을 자기 대오에 결속한 단결되고 규률있는 대중적 단체로 장성 강화되였다.

지금 조선 청년들이 살고 있는 북쪽 혹까이도로부터 남쪽 쯔시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에 조청 조직이 꾸려져 있으며 생기발랄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청의 간부 대렬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그의 전투적 기능도 비상히 높아졌다. 중앙과 현 본부 조청 단체 간부들은 모든 조건이 극히 불리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도 지부와 조청 반 단체에 내려 가서 기층 조직들과 열성자들의 실제 사업을 도와 주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전반적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재일 청소년들 속에서 조청의 위신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청년 군중과의 련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재일 조선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는 것은 조청이 결성된 이래 자기 앞에 내세운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다.

조청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자기 조국과 수령을 무한히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 자기 력량을 집중하였다.

오늘 조청 내에는 총련의 지도 밑에 강연, 해설 담화, 독보 사업, 출판 선전 사업 등 정연한 사상 교양 체계가 확립되였다. 뿐만 아니라 280여 교의 청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청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청년》, 소년 신문 《조선 소년》, 학생 잡지 《새세대》가 발간되여 청년 학생들의 애국주의 교양에 복무하고 있다. 또한 일본 각지에 설치된 《조국 연구실》들에서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감상 모임, 토론회 등이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되고 있다.

조청 단체들은 또한 총련이 제시한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는 구호 밑에 각급 학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말과 글, 지리와 력사, 문화 전통을 학습하게 하며 사회주의 조국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와 위대한 전망을 광범히 해설 선전하고 있다. 또한 《양키 생활 양식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으로 살자.》는 구호 하에 일상 생활에서 조선어를 쓰며 외모도 조선 식으로 단정히 하며 서로 돕고 협조하며 검박하게 생활하는 기풍으로 교양하고 있다. 이리하여 재일 청년 학생들 속에서 민족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주체 사상을 수립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건전하고 검박한 생활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혁명적 열의가 높아지고 조선 청년으로서의 아름다운 미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청은 총련의 지도 하에 민족 문화와 민주주의 민족 교육을 발전시키며 조국에로의 귀국과 자유로운 왕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청과 재일 청년 학생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전체 동포들과 함께 미일 반동들의 민족 동화 정책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항거와 피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일본 각지에는 초급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530여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4만여 명의 재일 조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활기있게 자라고 있다. 학생 소년들 속에서는 《모범 학급》, 《모범 분단》 창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급격히 제고되고 그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조청은 재일 동포들의 한결같은 숙망이였던 사랑하는 조국에로의 귀국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조청원들은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시위와 군중 집회 등 대규모적인 집단적 귀국 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재일 청년 학생들을 이 투쟁에 적극 조직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1959년부터 귀국 사업이 실현된 후 이미 100여 차에 걸쳐 8만여 명의 동포들이 번영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조청은 재일 동포들의 조국에로의 자유 왕래를 위한 근 1년 간의 투쟁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금 자기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태세로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은 지난 시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 밑에 그의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민족 단합 사업과 통일 전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들은 몸은 비록 해외에 있으나 우국지성을 불태우면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강력히 지지 성원하였으며 일본에 있는《민단》 영향 하의 청년 학생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제의 조종 하에 남조선 괴뢰 도당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리고 있는 범죄적 《한일 회담》을 분쇄하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범죄적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중적으로 궐기하였을 때에도 재일 조선 각 계층 청년들은 그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였다.

지금 재일 조선 청년들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가 제기한 제안들을 열렬히 지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 운동에서 거둔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재일 동포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그이의 극진한 사랑과 육친적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전체 재일 조선 청소년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김 일성 동지의 교시대로 생활하고 일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 부동한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다.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 밑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혁명은 파도와 같다

박 우섭

(전호에서 계속)

혁명가에게 있어서 조직은 생명이다.

조직—그것은 혁명가에게 있어 생명 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때문에 항일 유격 대원들은 지난 날 조직의 위임에 무한히 충실하였고 그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낌 없이 바쳤다.

조직에 대한 충실성—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열여덟 살의 꽃다운 청춘을 혁명에 바친 공청원 리 신한 동무에 대하여 잊을 수 없다.

1941년 여름 어느 날 우리들 5 명의 소조원들은 지휘부의 명령을 받고 북만의 북안 지방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파괴된 지방 조직을 재정비하며 히틀러 독일의 쏘련 침공과 관련한 쏘만 국경 지대 일본군의 동향을 정찰할 임무가 하달되였다.

우리는 굴빈허와 강허를 건너 때로는 생명을 걸고 삼엄한 경비진을 뚫기도 하고 때로는 해'빛 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수림을 빠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통채로 사람을 삼키는 아슬 아슬한 흔들레판을 넘기도 하면서 700 여 리의 먼 행군을 다그치였다.

지휘부를 떠난지 벌써 열흘이 지났건만 우리의 앞길은 아직도 아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나어린 공청원 리 신한 동무는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무전기를 메고 앞장 서 걸었다. 누가 그의 무전기를 좀 바꾸어 메고 가자고 하여도 그는 한사코 마다 하였다.

《이 무전기는 우리 조직의 생명이예요. 그리구 무전기의 임자는 어디까지나 나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끝까지 무전기를 메고 다녔다. 열여섯 어린 나이에 혁명 대오에 참가한 그는 한 때 김 책 동지의 련락병으로 있은 일도 있는데 하루'밤에 험한 령을 넘어 두세번 련락 갔다 와도 힘든 기색을 한번도 나타내지 않은 동무였었다.

우리는 그가 너무도 기특하여 내내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었다.

우리가 지휘부를 떠나 약 15일 가량 지난 어느 날이였다. 어느 한 깊은 수림의 가장자리에 나선 우리는 아슴프레 들리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들었다. 목적지가 멀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우리는 바싹 걸음을 다그치였다. 어느덧 밤이 되고 환한 달이 솟아 올랐다. 한참 후 우리는 한 목재소 부락이 바라 보이는 야산에 이르렀다. 톱이며 도끼를 달'빛에 번쩍거리며 산판에서 돌아 오는 로동자들의 대렬이 나무 사이로 얼핏얼핏 보였다.

우리는 숲 속에서 나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수고하십니다. 길을 좀 묻겠습니다.》

두 명의 로동자가 우리들을 대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안심하십시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일제놈들과 싸우는 항일 유격대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얼굴은 불시로 환해졌다.

그들은 우리의 손을 덥석 잡고 목이 메여 하면서 웨쳤다.

《아! 당신들을 인제야 만났구려.

정말 우리들은 당신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 때 이 곳에서 활동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혁명 조직의 성원들이였다.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지방 조직의 연줄을 다시 찾게된 우리의 기쁨은 비할 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혁명 조직을 재정비하고 군중을 그 주위에 집결시키는 한편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북안성 내 적들의 동향도 탐지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제의를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

《유격대를 돕는 일이라면 몸이 가루가 되는 일이 있어도 돕겠습니다.》하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였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자진하여 식량이며 담배, 동내의, 기타 공작 물품들을 구해다 우리에게 주었고 나중에는 적들의 한 개 사단이 집결되여 있는 북안 시내의 적 병영과 포대 배치 정형이며 세밀한 지도까지 그리여 왔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아주 정확한 자료였었다.

나는 이런 때에도 조직의 힘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 소조원들은 결국 이렇게 지방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공작 임무를 성과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우리가 자기의 공작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오른 것은 그 해의 10월 말경이였다.

북만의 산야에는 벌써 눈이 두텁게 깔려 있었다.

우리가 굴빈허 강반에 되돌아 오니 강 복판은 아직 얼지 않고 시퍼런 물'결이 사납게 사품치고 있었다. 근방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부득불 우리는 강이 마저 얼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강반에서 한 40~50리 떨어진 수림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이 때 적들의 토벌대 놈들을 만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한낮 때쯤 되여서 50여 명의 기병 놈들이 말발'굽에 뽀얀 눈보라를 일쿠며 접어 들고 있었다. 우리는 바삐 그곳을 피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지궂게 그냥 따라 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지역을 선택하여 세 패로 나뉘여 삼각 매복을 조직하고 놈들을 소탕하기로 결심하였다. 나와 리 신한 동무가 한 조가 되여 매복하였다.

어리석은 적들은 우리의 매복권 내에 들고 말았다. 우리는 놈들에게 통쾌한 명중탄을 담아 부었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는 않았다. 놈들은 련방 쓰러지면서도 우리가 소수임을 알고는 계속 집요하게 접어 들었다. 놈들은 곧바로 나와 리 신한 동무가 매복한 쪽으로 밀려 오고 있었다. 놈들의 총탄이 우박치듯 날아와 눈 우에 스륵스륵 박혔다.

나는 아름드리 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부하들을 전투에로 내모는 적 기병 중대장 놈을 똑바로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 놈은 가슴을 부여 잡고 몸을 비틀더니 말에서 떨어졌다. 련'이어 또 두 놈의 기병을 쏘아 넘겼다.

그런데 나는 이 때 리 신한 동무가 다리에 적탄을 맞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정통으로 맞고도 우리의 위치가 로출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두 번째 총탄을 맞은 후에야 그의 부상을 알았다. 원쑤의 흉탄은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내색도 없이 그냥 엎디여 있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 달려 갔다.

그는 피 흐르는 자기의 가슴 밑에 무전기를 꽉 그러안고 있었다. 그 무전기에는 붉은 피가 랑자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창백해진 얼굴에 애써 강인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난 아무 일도 없어요. 어서 저 놈들을 쏘라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상처를 지혈시킨 후 다시 원쑤를 쏘아 눕혔다.

해가 뉘엿뉘엿 질 녘에 전투는 끝났다.

수림 속에는 놈들의 더러운 시체가 걸레 쪼각처럼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내가 다시 리 신한 동무에게 달려 갔을 때 그는 의식을 잃고 혼미 상태에 빠져 그냥 누워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눈을 떴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가 한 첫마디 말은 이러하였다.

《저 내 무전기는 무사한가요?》

우리는 그에게 무전기가 무사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의 입가에는 웃음이 피여 올랐다. 그는 발그레 석양 노을에 물든 하늘을 바라 보고 있었다. 그 날 밤 그는 가쁜 숨결 속에 무전기를 찾았다. 무전기를 그의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꽉 그러안으며 말했다.

《나는 혁명 앞에 죄를 졌어요, 아직도 우리가 적후를 빠질 때까지 무전수로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도 나는 조직의 위임을 다는 완수 못했어요.》

자기의 최후 순간에조차 조직에서 받은 혁명 임무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는 동무! 우리는 그의 고매한 정신 앞에 머리를 수그리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전기의 대출 암호를 대주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렇듯 혁명 앞에 충직하던 공청원 리 신한 동무는 열 여덟살의 꽃다운 젊음을 당과 혁명에 바쳤다.

어찌 이런 일이 리 신한 동무에게만 한한 일이였으랴! 원쑤들의 야수 같은 고문에도, 교수대에서도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한 동지들, 의식을 잃을 때 혹시 헛소리로 비밀을 누설할가봐 스스로 자기의 혀를 물어 끊은 혁명가들, 그런 투사들이 진정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나는 지금도 나의 전우들을 회상하면서 청년들에게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 생활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간곡히 권고하는 바이다. 그것은 곧 당과 혁명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으로 되며 자기를 훌륭한 공산주의 전사로 수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지와 인민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동일한 목적, 동일한 사상으로 싸우는 혁명 동지처럼 그렇게 귀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호상 관계에서 발현되는 최고 형태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의 장구한 기간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적 동지애는 곤난한 때일 수록, 위험한 때일수록 더욱 높이 발양되였다. 그들은 언제나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고 동지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부상 당하여 요하 지방의 깊은 밀영에서 치료 받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때 우리 중대장이였던 오 응룡 동지도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열네살에 벌써 유격대에 입대한 혁명성이 강한 동무였었다. 남달리 뜨거운 동지애를 지닌 그는 이 어려운 치료 기간에도 줄곧 자기의 상처에는 아랑곳 없이 다른 동지들의 상처에 대하여 돌보아 주고 걱정하군 하였다.

어느날 밤엔가 눈을 떠보니 그는 불편한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환자들의 모포를 일일이 바로 덮어 주고 있었다.

그런 때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와도 같은 상냥함이 어리여 있었다. 그러나 한 환자에게서 다른 환자에게로 옮겨갈 때마다 그의 몸은 몹시 비칠거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동무들이 추워할세라 이렇게 밤'잠도 자지 않고 덮어 주고 있는 것이다.

《중대장 동무!》 나는 이렇게 속으로 웨치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식량도 없었고 지어는 한 알의 소금도 없었다. 심한 눈보라 때문에 나무 열매, 풀뿌리조차 찾을 길 없었다. 왜놈들의 봉쇄가 그만큼 심하였던 것이다. 상처 입은 동무들의 몸은 쇠약할대로 쇠약해 갔고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다.

그것을 보는 오 응룡 동무는 자신의 힘으로 동지들의 괴로움을 덜어 못주는 것을 못내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 후 우리 보다 한 발 앞서 병원에서 퇴원한 오 응룡 중대장은 우리 부상병들을 호위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후 그가 장렬하게 희생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가 희생된 사연은 이러하였다. 그는 퇴원한 후에도 항상 병원에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이 때 최 용건 군장 동지로부터 오 응룡 동지에게 식량 공작의 중요한 임무가 하달되였다.

오 응룡 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5 명의 식량 공작 대원들은 무원성에서 요하현성 사이로 통한 도로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목적지까지는 눈속을 헤치며 200리 길을 가야하였다. 그들에게는 길 량식으로 닦은 콩 몇 줌 밖에 없었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하루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현사흘이나 눈무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끝내 유격대와 이미 련계가 있는 무원, 요하 간을 오가는 우편 배달부를 만나 식량을 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때 배달부 로인은 우편 말파리에 밀'가루와 천을 실은 외에 80여 개의 만두와 술까지 가지고 왔다. 며칠을 굶주림과 싸워 온 그들은 아직도 온기가 나는 만두를 보자 왕성한 식욕부터 앞섰다. 그러나 오 응룡 중대장은 《인민들의 지성이 담긴 이 따뜻한 만두를 그대로 부상 당한 동무들에게 가져다 줍시다.》 하고 말했다. 모두 기쁨에 넘쳐 그 말에 동의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 오던 중 적들의 매복선에 걸릴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였다. 이때 한 대원이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자 오 응룡 중대장은 그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고 빗발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그에게로 기여 나갔다.

그에게는 오직 혁명 동지를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 역시 부상당했다. 복사뼈가 부서지고 발목이 반나마 없어진 그는 일어 설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침착하게 원쑤들을 하나 하나 쏘아 눕히고 있었다. 이번에는 최 민철 동무가 달려드는 원쑤를 쏘아 눕히며 오 응룡 동무에게 접근하였다.

이때 그는 《민철 동무, 이 놈들은 내가 맡을테니 동무들과 함께 어서 빠지오.》하고 웨쳤다.

그러나 생사 고락을 같이 한 혁명 동지이며 지휘관인 그를 위험 속에 두고 어찌 그냥 떠날 수 있으랴! 최 민철 동무는 계속 앞으로 기여 나갔다. 그러자 오 응룡 동지의 목 소리가 다시 울렸다.

《동무! 이건 명령이요, 어서 떠나요! …꼭 부대로 돌아가야 하오!》

이날 오 응룡 동무는 중상 당한 몸으로 끝까지 동무들의 퇴각을 엄호하다가 원쑤들에게 생포될 위험이 다가오자 마지막 탄알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그래서 결국 5 명의 식량 공작 대원 중에서 세동지가 희생되고 두 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그들이 구해 온 식량을 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더우기 그들이 굶주리면서도 견뎌지고 온 만두와 동지들을 번갈아 보면서 나는 《중대장 동지!》하고 목메게 웨쳤다.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이 나의 가슴을 태웠다.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 동지들만 아니라 인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는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은 항일 유격대의 생활의 신조로 되고 있었다.

항일 빨찌산들은 그렇듯 간고한 나날에도 항상 인민을 혁명의 편에 묶어 세웠고 그들의 생명, 재산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또한 그들에 의거하여 싸움으로써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1943년 7월 우리 소부대 성원들이 지휘부로부터 훈무문 일대에서 활동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목적지를 향해 행군하던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

초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한밤'중이 되면서 더욱 세차게 담아 부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였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가둑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날 밝기를 기다렸다. 산 밑으로는 요란한 강물 소리가 밤새 껏 들려 왔다. 날이 밝은 후에 보니 범람한 강물은 돌을 굴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채 뽑아 밀어 내리고 있었다.

인민들의 가장집물들과 가축들도 떠내려 왔다. 노호하는 강물 속에 흘러 내리는 인민들의 가장집물을 보는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아팠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후 한 중국 로인이 나무 토막을 안고 물'살에 떠 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일순도 유여할 수 없었다. 일행 중 헤염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 밖에 없었다.

나는 함께 뛰여 들려는 동무들을 만류하고

재빨리 옷을 벗은 후 풍덩 물에 뛰여 들었다.

(설마 내가 어찌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로인만은 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에 가득하였다. 밀려 내리는 나무 통에 짓쬬기우면서 나는 천신 만고하여 로인에게까지 헤염쳐 갔다.

그리고는 나무 토막을 그러안은 로인을 강'가로 밀어 내기 시작하였다. 나는 몇번이나 물 속에 잠겼고 그때마다 물을 삼켰다. 홍수와 싸우는 나의 힘은 점점 진해져 갔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든 로인을 구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 통에서 로인을 풀어내여 한 팔에 끼고 헤염쳐 나왔다. 강녁에 있던 동무들도 비록 헤염칠 줄은 모르나 서로 팔을 끼고 내가 있는 쪽으로 맞받아 오고 있었다. 나는 로인을 힘껏 떠 미는 순간 다시 물에 잠겨 들었다.

《우섭 동무! 우섭 동무!》하고 간간히 웨치는 동무들의 목소리를 몇번 들었으나 나는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한참만에야 동무들의 팔에 안기여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사경에 처한 한 중국 로인을 구원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양가라는 중국 로인인데 아들은 팔로군에 가고 자기는 살'길이 없어 깊은 산중에서 뙈기밭 농사를 하고 있는 로인이였다. 그러던 중 큰 비가 내리기에 《집단 부락》 안에서 사는 며느리와 손자의 일이 걱정되여 찾아 떠났다가 그만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로인은 우리가 유격대원들임을 알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고맙소다. 당신들은 이 늙은 것의 생명의 은인이오다. 내 비록 몸은 늙었지만 무슨 일이든 힘껏 도와 드리리다.》

그후 우리는 산'속에 있는 로인의 초막에서 거처하면서 공작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며칠 후 이 곳 도로에는 한 《수박 장사》가 나타났다. 양 로인이 우리를 돕기 위해 자기가 심은 수박들을 지고 《수박 장사》로 가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로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 병영으로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적의 군사 시설과 적군의 배치 정형 등을 세세히 정찰하여다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로인의 지극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공작 임무를 성과 있게 끝마치였다.

그 다음 해인 1944년에도 로인은 우리의 소부대 활동을 적극 도와 주었다.

인민과의 굳은 련계—이것은 그야말로 항일 유격대의 필승 불패의 요인이였다.

우리는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나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회상을 더듬으면서 그중 몇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지난 날 우리의 수 많은 혁명 동지들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운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이 땅에 확고히 수립되였다.

오늘 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참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행복에 물젖어 결코 지난 날을 잊어서는 안되며 자기들 앞에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열망하던 조선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남조선의 2천 만 동포 형제들이 미제의 피묻은 군화 밑에서 안타까이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때까지 온 조국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싸워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전 대륙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상당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최후로 발악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원쑤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일상 생활에서 혁명하는 나라의 젊은이답게 검박하게 살며 더욱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

젊은 동무들!

나는 이로써 나의 글을 맺으려 한다. 나의 이야기들이 당신들의 생활과 공산주의 수양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기쁜 일일 것이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

권 종수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지역적 거점에 관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이 필요한 것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성과 관련된다.

농촌은 과거 착취 사회에서 오래'동안 도시에 의하여 부단히 착취와 략탈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전을 억제당하여 온 탓으로 일반적으로 보아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 도시에 비해 락후한 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주민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자연적 및 계절적 제약성도 많이 받는다. 특히 농촌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여 있으며 한 개의 협동 농장 안에서도 작업장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 있고 농민들은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일하며 살고 있다.

바로 농촌의 이러한 특성들로 하여 일정한 거점을 설정하여 농촌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점이 있어야만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발전의 수준상 차이, 주민 구성의 복잡성, 자연 기후적 차이 등을 타산하면서 그에 적절하게 농촌 사업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단위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 될 수 있는가?

테제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군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의 지역적 거점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군은 우선 그 크기에 있어서 지방의 각이한 특성을 옳게 리용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위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군은 농촌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군에는 군당 위원회를 비롯하여 군 인민 위원회와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 등 각종 지도 기관들과 농기계 작업소, 지방 산업 공장, 학교, 병원, 상업 류통망,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물질, 기술, 문화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간부 대렬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의 군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지도하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면 실제상 우리 나라의 군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가?

군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정치적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 지도 단위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그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중앙과 도의 방침들은 전부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침투되며 군 기관들과 간부들에 의하여 당과 정부의 정책이 집행된다.

다음으로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이다.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조직하며 지방 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등을 비롯한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수단과 기술 간부를 가지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직접 책임지며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산업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수매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농업 생산과 농촌 부업의 발전을 자극하는 한편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기술을 보급하는 등 로동 계급과 농민의 생산적 련계를 더 밀접히 하고 농촌에 정치 사상적 영향을 준다. 또한 군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에로 나가게 하며 한편 도시에서 생산된 모든 공업 제품들을 농촌에 공급하여 준다.

끝으로 군은 농촌의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모두 큰 도시에는 못 가 보지만 군 소재지까지는 누구나 다 와 볼 수 있으며 거기를 통하여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우게 된다. 군 소재지에는 학교, 병원, 영화관, 서점, 도서관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군에는 농촌 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며 군내 농촌의 전반적 문화 후생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과 간부들이 있다. 또한 농촌 문화 혁명 수행의 선두에 서야 할 당 간부들과 관리 기술 간부들이 주로는 군 교육 기관을 통하여 양성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을 담당 수행하는 농촌 건설대들이 모두 군에 소속되여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나라의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정치적 거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거점으로, 농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적 거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군은 비단 사회주의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서도 가장 적합한 거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창성 련석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군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군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부단히 강구하여 왔다.

당은 우선 군과 리 사이의 행정 단위였던 면을 페지하고 군을 적절한 지역적 크기와 사업 범위를 가진 말단 지도 단위로 되게 했다.

또한 군에 지방 산업 공장을 비롯한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위한 충분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군을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 단위로 꾸려 놓았다.

또한 군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 기관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협동 농장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강화하게 하였으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는 군 사업을 한 계단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과 특히 농촌 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 오고 있다.

금번 테제에서 제기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모범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리론, 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군을 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할 데 대한 테제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전국 도처에 아름답고, 아담하고, 깨끗한 사회주의 지방 도시와 그 주변에 일떠선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청년생활 소사전

미생물이 단백질을 만든다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는 공기 중의 질소로 단백질을 만드는 새로운 미생물—사료 박테린을 발견하였다.

단백질 함유량이 1% 정도인 사료에 이 미생물을 넣었더니 몇 시간 후 단백질 함유량이 8 배나 불었다.

보통 1.5%의 단백질이 함유되여 있는 알곡 겁데기를 이 미생물로 가공한 결과 그의 단백질 함유량이 9.5%까지 증가되였는바 보리와 같이 영양가 높은 사료도 단백질 함유량이 8%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돼지의 사료를 이 미생물로 가공하여 먹였더니 돼지의 1 일 증체량이 다른 것에 비해 70~90 %나 높았다.

유리한 조건에서 하나의 미생물 세포가 40 시간 동안 18 톤의 박테리아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료 박테린에 의한 영양가 높은 단백질 사료 생산의 전망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의 기업적 방법

김 창 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사회주의 농업 제도는 그에 적응한 지도 관리 방법을 확립하여야만 그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대규모 경리로 된 사회주의 농업 제도의 우월성은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더 잘하면 할수록 또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면 시킬수록 더욱더 발휘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김 일성 동지는 금번 테제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테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의 기본은 기업적 지도 방법이며 또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성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 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기술적 지도에 힘을 돌리면서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기술 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재정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기업 활동을 직접 틀어 쥐고 구체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왜 농업 협동 경리를 반드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 경리로 그의 경영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업 협동화가 실현 됨에 따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그의 사업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계속 제기된다. 때문에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종전의 개인농 경리와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만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자면 농촌의 모든 경영 활동들이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여야 한다. 즉 토지, 농기계 등 모든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짜고 들어 해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가 발전됨에 따라 뜨락또르, 자동차의 대부대가 농촌에 들어가며 새 농기구들과 화학 제품들이 광범히 도입되고 씨뿌리기, 밭갈이, 김매기, 탈곡 등 작업들을 기계가 해 줄 뿐만 아니라 선진 영농 기술들이 광범히 도입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역시 기술 공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농촌 경리의 기술 장비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도 공업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지도에서 기술 지도를 보장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복잡한 기술 공정들을 거쳐 진행되는 생산 과정에 깊이 침투하여 실속있게 지도할 수 없으며 모든 생산 장성의 예비를 찾아내고 동원시키면서 농업 생산력을 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없다.

오직 기업적 방법을 통해서만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할 수 있고, 농업 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협동 농장을 공고히 하고 농업 생산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적 방법을 도입하여야만 사회주의 농업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의 기업적 방법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직후에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농업 지도 체계에 구현하여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체계를 창설하였다.

그러면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어떠한 기관인가? 테제에는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협동 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라고 지적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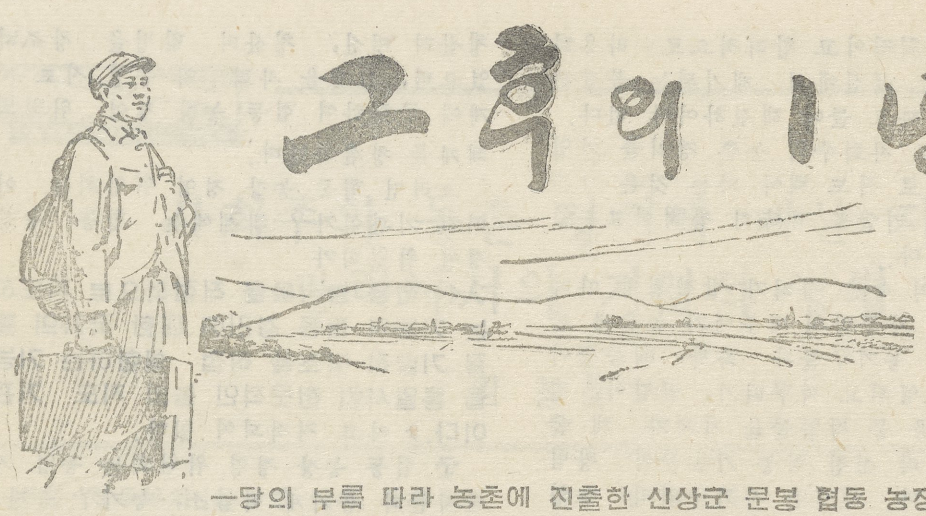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직접 장악하고 협동 농장에 내려가 농업 생산의 기술적 지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협동 농장들의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직,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재정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 활동을 직접 틀어 쥐고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이와 같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새 농업 지도 체계에 의하여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 관리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급속히 앙양되고 있으며 기술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시위하고 있다.

테제에서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의 기업적 방법을 해명한 것은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리론 및 실천 분야에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헌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것으로 된다.

———☆———

그후의 1년



—당의 부름 따라 농촌에 진출한 신상군 문봉 협동 농장 전 극성 동무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약속

작년 3월 초.

2.8 비날론 공장에서 일하던 전 극성 동무는 어느 날 밤에 자기의 애인 김 수월 동무를 찾았다.

《수월 동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자고 하오.》

너무도 갑자기 하는 극성 동무의 말에 수월 동무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그것은 뜻밖이였던 것이다.

제사 공장에 다니면서 극성 동무를 알게 된 수월 동무는 이 때까지 그저 극성 동무와 장차 가정을 이루고 도시에서 행복한 새 살림을 꾸릴 단순한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월 동무가 우리의 부모들이 걸어온 길과 오늘 당의 부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충분히 리해해 주리라고 믿소.》

이 때 수월 동무는 문뜩 지난 날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자주 들려 주던 극성 동무의 이야기가 생각 났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극성 동무는 신상군 문봉 마을에서 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여 났었다. 땅이 없었던 그의 부모들은 한뉘 말 못할 고생 속에서 살았다. 일제와 지주놈들에게 다 뜯기우고 나면 식량은 해마다 떨어져서 쌀독에 거미줄 가실 날이 없었고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이런데도 일제와 그 앞잡이 지주놈들은 소작료와 공출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극성 동무의 집에 빈번히 달려 들어서는 호통을 치고 집을 뒤집군 하였다.

지금도 극성 동무의 눈 앞에는 일곱살 때 공출 때문에 일제 순사놈들에게 매를 맞고 앞마당에 쓰러지던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의 따사로운 해'발은 극성 동무의 가정에도 다시는 그런 쓰라린 생활이 되풀이되지 않게 했다. 당과 인민 주권은 극성 동무의 가정에 4,000 평의 토지를 분여해 주었다.

우리의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고 그것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변모되여 감에 따라 극성 동무네 살림 살이는 날로 더 늘어 갔고 집에는 랑랑한 웃음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이 모든 것을 본 극성 동무는 그 때 어린 나이에도 장차 사랑하는 고향 땅을 락원으로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 갈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1954년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얼마 후 조국 보위의 초소에 달려 나갔고 제대된 후에는 2.8 비날론 공장에 배치되였다.

그러나 이 보람찬 나날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날로 발전해 가는 고향 마을에 대한 동경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래서 당이 농촌 지원 사업에로 부르자 그는 선참으로 농촌 진출을 지원해 나섰던 것이다.…

극성 동무의 지난날을 더듬고 있던 수월 동무는 머리를 들고 방긋이 웃으며 말했다.

《극성 동무의 심정을 저도 잘 알겠어요, 참 훌륭한 생각이예요. 저두 농촌으로 가고 싶어요.》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자란 그 역시 당의 부름 따라 농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청년으로서의 마땅한 일이라고 가슴 뜨거이 느껴졌던 것이다.

《고맙소, 수월 동무!》

이렇게 부르짖으며 극성 동무는 격한 심정으로 수월 동무의 손을 굳게 쥐였다. 바로 이렇게 혁명의 위업을 자신들의 사랑이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한 극성 동무와 수월 동무는 이 날 밤 농촌으로 나갈 것을 서로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7급공인 수월 동무는 자기 후비를 양성해 놓은 후 금년 가을에 농촌으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값 높은 생활

그때로 부터 며칠 후…

고향 마을에 들어선 극성 동무는 먼저 뒤'골 언덕에 이르러 그리운 고향 산천을 정겨운 눈으로 바라 보았다.

봄을 맞은 두루봉은 아지랑이 속에 높이 솟아 있고 그 밑으로는 다복솔 우거진 산'줄기들이 보기 좋게 뻗어 내렸다. 산'기슭에는 아담한 농촌 문화 주택들이 오붓하게 자리잡고 마을 앞 철'길 넘어로는 관개 수로를 복판에 낀 옥'벌이 시원스럽게 펼쳐졌다. 벌판은 봄갈이에 나선 뜨락또르와 농장원들로 법석끓고 있었다.

《아, 얼마나 살기 좋은 고향인가!》

변모된 고향'벌을 보는 극성 동무의 가슴은 한 없이 흐뭇하였다.

그는 심장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기쁨을 금치 못하여 마을로 단숨에 달려 내려가 배낭을 벗어 한 켠에 놓은 후 농장원들 속에 섞이여 일'손을 잡았다.

고향에 돌아 온 첫날부터 이렇게 일에 달라붙은 극성 동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앞장에 섰다.

작년 여름 작업반 앞에 2회 제초를 15일간에 끝내야 할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작업반에서는 이 일을 기한 전에 끝내기 위해서 30여 명의 청장년들로 제초조를 조직하면서 여기에 극성 동무를 망라시키고 그에게 정치 선동 사업을 진행할 임무를 주었다.

그는 새벽마다 남 먼저 일터에 나가 작업 준비를 해놓군하였다. 휴식 시간에는 동무들에게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전망도 이야기해 주었고 재미있는 문화 오락 사업도 조직하였다.

밤이면 동무들의 집에 찾아가 그들의 집안일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때로는 너무도 일에 지쳐서 몸이 괴로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때마다 극성 동무는 생각 하였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다. 나는 농촌에 파견된 로동 계급의 한 성원이다. 나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둥이 되여야 하며 일에서도 응당 남보다 앞서야 한다.)

실로 농촌에 온 후 그의 열성은 놀랄만 하였다.

작년 가을 마을 앞 철도 량켠에 남아 있는 폭탄 구뎅이를 메우는 일이 제기 되였을 때에도 극성 동무는 20여 명으로 조직된 청년 돌격대의 부대장이 되여 남보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동무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는 이 폭탄 구뎅이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에 남긴 잊지 못할 하나의 상처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제의 만행을 그린 그림을 일터에 붙혀 놓고 동무들을

향하여 웨쳤다.

《동무들! 우리는 미제 원쑤들을 매장해 버리는 심정으로 이 폭탄 구뎅이를 메웁시다.》

그의 이 생동한 정치 사업은 곧 은을 내였고 동무들은 한층 더 기세를 올렸다. 그리하여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폭탄 구뎅이는 말끔히 가셔지고 1만여 평의 새 토지를 얻을 수 있게 되였다.

극성 동무는 자기 앞에 맡겨진 일 외에도 협동 농장을 위한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수걱수걱 해치우군 하였다.

하루 일이 끝나면 버릇처럼 가래'골을 에돌아 포전의 작물 상태를 살펴보고야 집으로 돌아 왔다는 이야기, 장마가 계속되여 둥이 터질 위험이 생기자 남먼저 달려가 가슴까지 치는 물에 뛰여 들어 물줄기를 돌림으로써 16 정보의 논을 보호했다는 이야기, 실로 극성 동무가 마을의 살림'군답게 일한 사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만을 더 이야기하자.

어느날 극성 동무는 민청 위원장을 만나서 두 장의 설계도를 내놓았다. 하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설계도였고 다른 하나는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설계도였다.

가정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설계도에는 뜰안에 과실 나무를 심을 위치와 꽃밭을 만들 장소로부터 시작하여 이불장, 양복장, 라지오, 재봉기 등 중요 가장집물을 언제 사겠다는 것들까지도 세세히 적혀 있었다.

마을을 살기 좋게 꾸리기 위한 설계도에는 야산들에 여러가지 과일 나무를 심을 위치도 표시해 놓고 양어장, 공원 그리고 도로 주변에 백양 나무를 심을 것까지 적혀 있었다.

민청 위원장은 남달리 고향을 사랑하는 그의 소행에 깊이 감동되였다. 이것이야 말로 얼마나 주인다운 태도인가! 《참 훌륭한 생각이요. 이 설계도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

그 후 극성 동무는 자기 집 주변에 포도, 배, 추리, 밤 등 30여 본의 과수 나무를 심었고 마을의 도로 주변에 백양 나무도 심었다.

실로 새 생활의 나날은 그에게 있어 값높은 나날이였다.



마을의 붉은 교양자

지난 해 11월에 극성 동무는 초급 민청 단체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그에게는 40여 명의 민청원들을 지도하고 교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기의 책임에 비해 아는 것이 너무도 적다고 생각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농촌에서 혁명의 기둥이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알아야 한다.)

그는 고향에 온 날부터 한층 더 학습에 열중하였다.

그가 뜨락또르 기술을 배울 때만 하여도 5 리 밖에 있는 자기의 동생(뜨락또르 운전수이다)을 찾아가 그를 《선생》으로 삼고 직심하게 배워 짧은 기간 내에 뜨락또르를 몰줄 알게 되였고 농산, 축산, 원예에 대한 기술 지식도 꾸준한 학습으로 어느 정도 갖게 되였다.

극성 동무는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농장원들과 민청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어느날 극성 동무는 쑥'벌에 갔다 오는 길에 논판에 버려져 있는 써레가 눈에 띄웠다. 그것은 6작업반의 것이였다.

(나라와 농장의 재산을 아낄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써레를 메여다가 작업반 사무실 마당에 놓았다. 그리고는 민청원들을 모아 놓고 담화를 가졌다.

《이 써레는 저 쑥'벌 논판에 주인없이 놓여 있었소. 만일 전선에 나간 군인이 자기의 무기를 이 써레처럼 팽개친다면 어떻게 되겠소? 녹이 쓸어 못쓰게 되고 결국 혁명에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이 아니요. 이 써레도 우리 농장원들의 무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공동 재산에 대한 그릇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실물을 통한 생동한 정치 사업은 곧 효과를 나타내였다. 청년들은 이 사실을 듣자 저마다 공동 재산에 대한 주인답지 못한 태도라고 하면서 농기구를 자기 몸과 같이 귀중히 다루겠다고 다짐들을 했다.

또한 작업반에는 농촌은 도시만 못하다느니,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도시와 공장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는 일부 청년들도 있었다.

극성 동무는 그들에게 우리 당의 농업 정책과 농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농촌의 휘황한 발전 전망을 이야기해 주군 하였다.

그러는 한편 작업반 내 청년들이 문화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는 곧 각종 써클을 조직 운영하고 하루 일을 끝마치면 그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문봉 중학교 음악 교원에게 부탁하여 새 노래를 배우기도 하였다. 얼마 후 그들의 써클에는 30여 명의 합창단, 6 명의 중창조, 8 명의 가야금 병창조가 생겨서 더욱 활기를 띄였다. 써클이 잘 되니 생산에서도 배 이상의 능률이 났다.

그런데 아직 마을의 선전실 설비가 부족한 것이 큰 결함이였다. 극성 동무는 선전실을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민청원들과 함께 칠골에 가서 온돌장을 떠오기도 하였고 유휴 자재를 모아 무대도 만들었으며 유리도 말끔하게 끼웠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밤을 밝혀 가며 온돌을 놓고 도배질도 하였다. 극성 동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하여 선전실은 번듯하게 꾸려졌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농장원들과 민청원들을 모아 놓고 회상기 모임도 가졌고 군중 문화 사업도 조직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극성 동무는 농장원들과 민청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해 나갔다.

그는 마을의 훌륭한 붉은 교양자로 되였다.

× ×

얼마전 극성 동무는 함흥 제사 공장에서 일하는 수월 동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오늘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재삼 읽어 보았소. 보면 볼 수록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소. 나는 로동계급의 한 성원으로 농촌을 지원하여 달려 온 것을 더 없는 영예로 느끼고 있소. 지금 나는 생활에서 점점 더 큰 보람을 느끼오. 동무도 빨리 여기 농촌에 오기 위하여 더욱 힘 쓰고 있다니 정말로 기쁜 일이요. 수월 동무, 앞으로 우리의 리상과 행복을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에서 활짝 꽃피워 봅시다.》

그렇다! 앞으로 우리의 농촌은 바로 이런 농촌 지원자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해 가리라!

본사 기자 김 학일

철도 전기화 공사장에서 온 소식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건설인 평양—신의주간 철도 전기화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 섰다.

설한풍 휘몰아치는 강추위를 이겨내며 이 나라 청년 건설자들은 500 리 철'길 우에 또다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쌓아 올렸다.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며 조국의 반석을 다지기 위하여 자연과의 엄혹한 투쟁에서 발휘한 청년 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불굴의 기상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한없이 감동시키고 있다.

이제 그들 속에서 피여난 아름다운 이야기 몇 토막을 아래에 소개한다.

청춘의 랑만

지난 2월 초순이였다.

동림역에서 내린 우리는 동림—차련관 구간에서 벌어지는《6만산》 현장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북서풍이 눈까비를 날리며 세차게 불어왔다.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철'길을 따라 걸어갔다. 아마 이렇게 10 리는 실히 걸었을 때다. 약 50 메터 앞에 철'길 한편을 둘러 친 수수바자가 나서고 그 속에서 웅성대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호기심에 끌려 바자안을 넘겨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웃통을 벗어 제낀 예일곱 명의 청년들이 렬을 지어 바자 둘레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아연해졌다.

(저 사람들이 이 엄동설한에 어쩔려고…)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 수수바자 안에는 천막이 쳐 있고 그 속에서는 욱욱하며 법석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나왔다.

우리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천막의 좌우로 폭이 5메터 가량되는 개울이 있다는 것과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를 맞아 준 5 대대 5 중대 《1,211고지 청년 돌격대》 대장 김 정국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꼭 랭수 마찰을 하고 난 후에 느끼는 그런 상쾌한 기분입니다.》

이런 말에 어떤 대답이 적합할런지를 우리는 찾지 못했다.

《물 속에서 일하던 동무들이 더운 곳에 인차 들어서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과라도 하는 듯한 그의 소박한 말에 우리는 더욱 당황하였다.

이들이 하는 일은 철로 곡선 펴기 작업이였다. 여기 공사장에서는 주되는 작업이 전선을 늘이기 위한 탑주를 세우는 것과 이리저리 구부러진 곡선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6만산》, 《7만산》도 떠 옮겨야 하며 이런 작은 곡선도 바로 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 동무의 안내로 천막에 들어 선 우리는 또 한 번 흠칫하고 놀랐다. 예상 외로 그 안은 훈훈했다.

《저걸 보십시요. 우린 일을 해도 락천적으로 하지요.》

살펴보니 세 개의 기둥으로 걸이'대를 만들고 굵은 쇠줄에 화독을 둥둥 매달았는데 그 속에서는 장작'개비가 활활히 불타고 있었다.

(과연 신통한 생각이군!) 우리는 청년들의 기발한 묘안에 혀를 차며 감탄했다.

(여기에 바로 청춘의 랑만이 있구나!)

우리는 눌러썼던 모자 깃을 올렸다.

어쩐지 이 사람들 앞에서 외투를 입고 선 우리 자신이 송구스러웠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였는가를 대장 동무에게서 듣게 되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대대부에서는 이곳 구조물 공사를 해토 무렵까지 밀리기로 했다. 그러나 5.1절 전으로 철도 전기화를 끝낼 것을 맹세한 청년 건설자들은 하루를 뒤미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모두가 이 어려운 공사를 탄원해 나섰다. 하지만 그 영예는 《1,211 고지 청년 돌격대》에 차례졌다.

돌격대 세포 위원장 김 호일 동무는 자기네가 이 영예로운 과업을 맡게 된 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피 끓는 혈기 같아서는 당장 《돌격 앞으로!》 이렇게 고함치며 선참으로 얼음 속에 뛰여 들고 싶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서뿔리 덤벼들 그런 일이 아니였다. 그는 혼자서 작업 현장에 나왔다. 그리고 얼음을 까고 손을 슬며시 넣어 보았다. 20 분은 견딜 수 있었다. 다음에는 발을 그 속에 잠구었다. 발은 손과는 달랐다. 얼어드는 발을 나꾸채며 후—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안되겠는걸…)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오래'동안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자. 다만 한 가지 준비가 끝나고 세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신 홍만, 박 상룡, 허 정길, 리 재수, 황 원철 등 민청원들이 점벙점벙 물 속에 뛰여 들었다는 사실만을 덧붙여 두기로 한다.

이 벅찬 시대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어렵고 험한 길을 찾아든 그들, 하물며 혁명 동지들의 신상을 념려하여 바자를 둘러 치고 천막에 화독까지 장만한 세포 위원장의 마음을 잘 아는 그들이어늘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살을 에이는 얼음 속에서 구조물 공사를 기한전에 완성하였던 것이다.

《따찌까》에 깃든 사연

이 이야기는《6 만산》 현장에서 들은 것이다.

사건인즉 5 대대 자재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두 대의 따찌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도착하기 달포 전에 벌어진 이야기였다.

5 대대 10 중대에는 고원 기관구에서 탄원해 온 박 계환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여기에 오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안해 리 춘선 (고원 기관구 선반 작업반 조기공) 동무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불쑥 그 앞에 나타났다.

《여보, 직장 일은 어떻게 하구 왔소?》

남편의 물음에 안해는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대'구도 없었다. 그는 가지고 온 큼직한 짐 꾸러미를 펼쳐 놓았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따찌까이다.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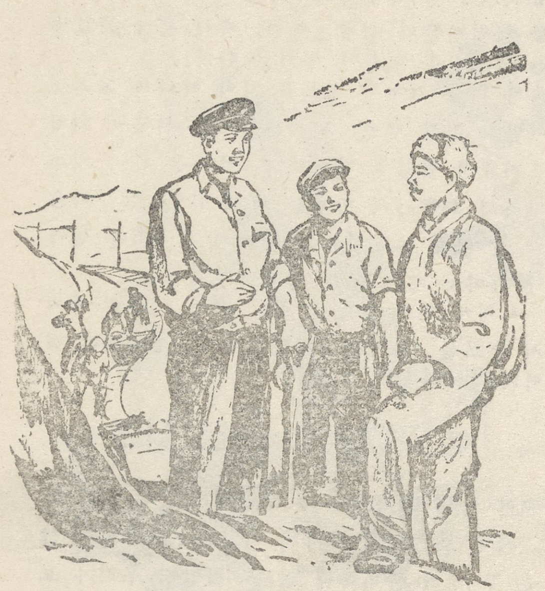
《이것은 당신 것이구 이것은 제 것이예요. 이제부터 우리 둘이 서로 경쟁하자요.》

려장도 풀기 바쁘게 남편에게 뒤질세라 작업에 달라 붙은 그는 보름'동안을 걸싸게 일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 갔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였는가?

리 춘선 동무는 철도 전기화 공사가 시작되자 매일 같이 기관구 초급당 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럴 때마다 당 위원장은 《남편이 가면 되지 않았는가.》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다 동지를 떨고 떠나면 이 초소는 누가 지킬테냐?》고 으름장도 놓았다.

리 춘선 동무는 애초의 결심을 변경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는 제 해에 들어서자 보름'동안에 자기 생산 과제를 해 제끼고 휴가를 신청했다. 누구도 그가 휴가를 서둘러 받는 심정을 알리 없었다.

그는 저금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무슨 선물을 사 갈가?내의? 양말? 달걀?…)

사고 싶은 것도 많았다.

허지만 남편의 편지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가에서 풍부하게 공급해 주니 아무런 근심도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무래도 달걀을 듬북 사들고 가야 해, 그래서 그곳 건설자들에게 대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언젠가 편지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 기억이 났다.

《…현장에는 따찌까가 부족하오. 빨리 따찌까를 만들어 보내오…》

이튿날 그는 전재 상점에 찾아가 따찌까 두 대를 샀다. 그리고 꽁꽁 포장해서는 그것을 둘러 메고 정거장에로 향했다.

역 화물 취급실에서 수속을 마친 그는 미심결에 이렇게 물었다.

《이 짐이 언제쯤 가 닿을가요?》

《아마 나흘은 걸릴 겝니다.》

《나흘이요?》

그는 부랴부랴 수속을 취소하고 돌아섰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흙을 떠 옮길지 모르는 데 천금 같은 이 세월에 나흘이라니, 안 된다. 이것은 꼭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리하여 철도 종업원인 그는 아픈 마음을 누르며 철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일생에 한번 만을…

무게가 60 키로그람, 크기가 보통이 아닌 따찌까 두 대를 그가 어떻게 여기 《6 만 산》 현장까지 메고 왔는가를 세세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직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줄곧 가슴을 불태우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만이 그러한 아름다움은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청원 할아버지》

《7만산》 현장은 내중—룡주 간에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사실을 목격하고 또 듣기도 했다.

여기서는 다만 4 대대 2 중대장 동무에게서 들은 다음의 이야기만을 소개하기로 하자.

하루는 아래우 솜동복을 가뜬하게 차려 입고 배낭을 둘러 멘 한 로인이 중대장을 찾아 왔다. 얼핏 보기에도 60 고개는 훨씬 넘어 보였다.

《중대장 동무요? 난 김 현직이라구 하오다.》

로인은 이렇게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더니 다짜고짜로 일'감을 내라고 독촉하였다.

한 동안 중대장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윽하여 그는 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는 청년들이 도맡아 해제낄테니 념려 말고 돌아 가십시오.》

그러나 로인은 막무가내였다. 나중에는 중대장에게 역증까지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대장, 날 아무리 달래고 구슬려도 소용없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오다? 40 년간을 철도 로반에서 늙어 왔수다. 이 팔뚝을 좀 보오.》

로인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구리'빛 나는 무쇠 같은 팔뚝을 내 흔들었다.

잠시 후 로인의 말은 좀 사그러졌다.

《여보게, 나를 중대에 받아 주게나 응, 나를 꼭 이 철도 전기화 공사장에서 일하게 해달란 말이야. 왜 이 심정을 몰라 주는가 응!》

로인은 주름진 볼 우로 굵은 눈물 방울을 떨구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열여덟 살 때부터 일제놈 공사판에 끌리여 다녔네…한 많은 그 세월을 새삼스레 말해서 뭘하겠네만 일본놈들이 원라선을 닦을 때 벌어진 그 비통한 참상은 내 눈에 흙이 덮이기 전에야 잊힐 수 있겠나 암! 잊힐 턱이 없지. 없어…》

로인은 억울했던 어제'날을 회상하듯 잠시 덤덤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

《…이것은 전자 부근에서 있은 일이였네…》

그 날따라 먹장 같은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 왔다. 벌써 열네 시간이나 일한 로동자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런데 일본인 조장 하야시란 놈은 땅거미 진지도 오랬건만 로동자들을 계속 일에 내몰았다. 로동자들은 할 수 없이 다시 벼랑으로 톱아 올랐다.

이 때였다. 경준이라는 젊은 로동자가 짚은 돌'부리가 부슬부슬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자기 한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데 어떻게 손을 쓰랴! 어둠을 째며《악!》하는 비명이 처량하게 울렸다. 그 다음에는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처절석! 하는 파도 소리만이 무심히 들려왔다.

야차 같은 암흑은 이렇게 젊은 로동자를 삼켜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대장과 청년 건설자들은 두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상부에 제기해서 소원을 꼭 풀어 드리겠습니다.》

중대장은 로인의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을 품고 불원천리 청진에서 찾아 온 현직 로인의 갸륵한 마음씨를 고맙게 생각한 대대 정치부에서도 며칠동안 공사에 참가할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발파공인 현직 로인은 재치 있는 솜씨로 발파 일을 도와 나섰다.

그런데 그 로인과 다시 한번 실갱이질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다.

세말이 가까와 왔다. 대대와 중대에서는 속히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설을 즐거이 쉬라고 간곡히 권했다.

이렇게 되자 로인은 자기 배낭을 지고 와서 중대장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왜 쌀을 정월 3일 분까지 가져 왔는지 모르겠소? 새해 첫 전투를 꼭 해제끼구야 돌아갈테요.》

로인은 청년 건설자들과 같이 또 하나의 위대한 서사시가 펼쳐지는 여기 철도 전기화 공사장에서 천리마 대진군의 새로운 고조의 해 1964년을 맞이했다.

새해 첫 발파를 보란듯이 해제끼고 그가 어깨춤까지 두둥실 춤판을 벌려 놓은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상상해 보자.

춤을 추며 90이 환갑이라는 수상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운 그 로인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맴돌이쳤겠는가!

어제'날 천대 받고 굶주리던 그, 해방후 비로소 인간의 진실한 삶의 맛을 속속드리 느낀 그였기에 비록 몸은 늙었으나 이렇듯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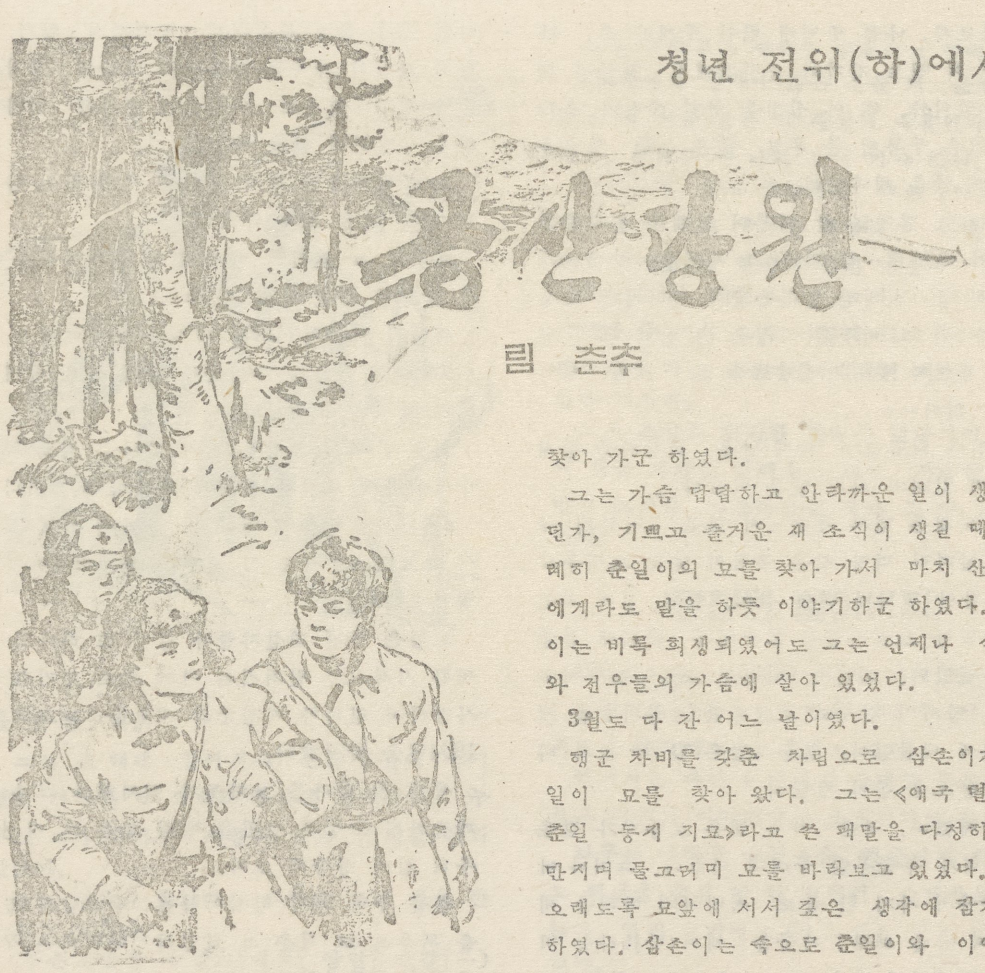
그는 돌아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조국이 통일되고 개성—부산 간 전기 철도를 놓을 때 다시 찾아 오겠소…》

현직 로인은 올해에 예순 다섯살이라한다.

리 병훈

청년 전위(하)에서



공산당원

림 춘추

1

내두산 앞쪽 양지바른 언덕에는 언제나 혁명군과 아동단원들의 발'길이 끊어진 적이 없는 묘 하나가 솟아 있다. 묘 앞은 항상 깨끗이 정돈되여 있었고 언제 한 번 눈 속에 묻혀 버린 일이 없었다. 눈이 내린 날 아침이면 아동단원들은 앞을 다투어 올라가 묘지의 눈을 말끔이 쓸어 내군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춘일의 묘였다. 삼손이는 항상 자기들을 굽어 보며 기뻐하라고 내두산 부락이며 백두산이 한 눈에 바라 보이는 이 언덕에 춘일이를 안치했던 것이다.

삼손이는 아침이면 의례히 일과처럼 모를 찾아 가군 하였다.

그는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던가, 기쁘고 즐거운 새 소식이 생길 때면 의례히 춘일이의 모를 찾아 가서 마치 산 사람에게라도 말을 하듯 이야기하군 하였다. 춘일이는 비록 희생되였어도 그는 언제나 삼손이와 전우들의 가슴에 살아 있었다.

3월도 다 간 어느 날이였다.

행군 차비를 갖춘 차림으로 삼손이가 춘일이 모를 찾아 왔다. 그는 《애국 렬사 주 춘일 동지 지묘》라고 쓴 패말을 다정히 어루만지며 물끄러미 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묘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듯 하였다. 삼손이는 속으로 춘일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춘일이, 우린 오늘 네가 그렇게도 뵙고 싶어 하던 김 일성 동지의 부름을 받고 여길 떠나 무송현으로 간다. 춘일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소원하던 모든 것을 죄다 말씀 드리마, 그리고 네 몫까지 합께 백배 천배로 싸우겠어, 춘일아 잘 있으라.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춘일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춘일이! 잘 있으라구.》

삼손이는 진작 춘일을 두고 떠나자니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만일 그와 함께 떠나게 되였으면 그는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었을 것인가!

누군가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내며 가까이 오고 있었다.

행군 차비를 갖춘 순희였다. 그는 어깨에 보총을 걸치고 삼손이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정들었던 내두산 근거지를 떠나는 것도 섭섭하였지만 보다는 삼손이와 자기를 사이에 있어 둘도 없던 다정한 동지인 춘일을 남겨 놓고 떠나는 것이 더욱 서글펐다. 순희는 춘일이와 작별을 할 생각으로 혼자 올라 왔다. 그런데 춘일이 모 앞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 사나이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삼손임을 알자 순희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순희는 살며시 삼손의 한쪽 팔을 붙잡았다.…

《너무 슬퍼말라요, 춘일 동문 죽었다구는 생각되지 않아요. 춘일 동문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옳게 말했소. 나도 이자 이 친구한테 그걸 말했지, 참 좋은 친구였소.》

삼손이는 새삼스럽게 춘일의 모를 눈주어 바라 보며 후— 한숨을 쉬였다.

순희는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들 속에 끼워 있는 자신이 무한대로 행복하였다. 사람들의 동지 우애심이 아무리 뜨겁고 두텁다 한들 삼손이를 비롯한 우리 동지들에게 비기랴 싶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일도 못 해낼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더우기 삼손이의 인간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품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라고 순희는 생각하였다…

(나는 삼손 동무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삼손 동문 나뿐만 아니라 동지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극진한가! 그는 밤에도 자지 않고 대원들이 잠자는 병영을 드나들며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지, 정말 나는 삼손 동무를 남편으로서 보다 스승으로 따라 배워야 할거야.)

출발 시간이 가까왔다. 삼손이는 순희를 돌아보며 이제는 내려 가자고 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에 잠긴채 병영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이런 때 당 지부 서기인 김 호룡이 큰 키를 앞뒤로 흔들며 언덕을 올라 왔다.

《허 이거 마지막 산'보롭이요?》

호룡이 호탕하게 웃었다.

삼손이가 고개짓으로 춘일의 묘지를 가리켰다.

《여보게, 같이 가기요, 잠간 기다려 주게.》

호룡이 껑충껑충 뛰다 싶이 하여 단숨에 묘지가 있는 언덕으로 뛰여 올라 갔다.

이윽고 세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내려 왔다.

《호룡 동무, 우리 입당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오? 당 보증인은 희생됐구…》

삼손이가 안타까운듯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중대의 어머니처럼 매사에 세심하고 신중한 호룡은 빙그레 웃었다.

《보증인이 없다고 입당 못할 것 같소? 춘일이의 입당 보증은 여전히 효력이 있소.》

사실 춘일이가 입당 보증을 약속한 것은 삼손이 뿐이 아니였다. 정철, 룡택, 성숙, 경희, 순희 동무들까지 보증을 서기로 하였던 것이다.

삼손이는 그가 정철, 룡택이들의 입당 보증을 서기로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녀 동무들에 대한 보증까지 서기로 한 줄은 몰랐다.

이렇듯 동지들에 대한 춘일이의 그 깊은 마음씨에 삼손이의 머리가 수그러 졌다.

혁명군과 아동단원 백여 명은 마안산 밀영에 와서 며칠 묵다가 서운해 하는 아동단원들을 거기에 떼여 두고 50여 명의 혁명군만 무송 동강으로 떠나 갔다.

혁명군은 천고의 수해 속을 뚫고 행군을 계속 하였다. 가도가도 밀림 뿐이며 길 아닌 길을 행군하자니 여간 곤난하지 않았다.…

혁명군은 열흘이 걸려서 무송 동강에 도착하였다.

여기도 수해의 련속 지대여서 해와 달이 겨우 비쳐드는 그런 원시림이였다. 나무 그루 사이로 멀리 귀틀집 몇 채가 내다 보였다.

밀영을 보니 삼손이는 어째서인지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바로 저기 저 귀틀집에 김 일성 동지가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놀았다.

여지껏 무겁던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고 날개라도 돋힌듯 훨훨 날 것만 같았다.……

삼손이 일행이 망원 보초선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두 유격대원이 뛰여 나왔다.

《동무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두에 선 팔팔한 청년이 손을 흔들며 뛰여 내려왔다. 그 뒤로 또 다른 대원 하나도 같은 시늉을 하며 따라 내려 왔다.

최 택만과 리 권행이였다. 삼손이는 그들을 얼싸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들은 한 달 전에 여기에 도착하였었다.

통신원의 안내를 받아 삼손이 일행은 귀틀집들이 듬성듬성 널려 있는 동네 앞으로 다가갔다.

두 채의 큰 귀틀집이 있었는데 한 채에 한 개 중대는 넉근히 류숙할 수 있는 그런 큰 귀틀집이였다.

통신원이 두 채의 큰 귀틀집 뒤에 있는 자그마한 귀틀집을 가리키며

《저 집이 사령부요. 바로 저기에 김 일성 동지가 계십니다.》

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삼손이는 별안간 온 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확확 얼굴이 달아 올랐다.

오매에도 그리던 김 일성 동지를 만나 뵙게 되였다는 것을 생각하니 막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였다

《잠간 기다리시오.》

통신원이 이런 말을 남기고 옷 차림을 한번 바로잡고 귀틀집 안으로 들어 갔다.

삼손이는 전 대원을 귀틀집 앞에 정렬시켰다.

관규를 비롯하여 성숙, 순희, 경희들의 얼굴마다에는 금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의 기색이 력연하였다.

삼손이는 조바심치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귀틀집 출입구만 지켜 보고 있었다.

이윽해서 삐걱하는 문소리가 났다.

순간 름름한 키에 정기가 예도는 환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으신 김 일성 동지가 나오셨다. 그 이는 잠시 발을 멈추고 대견한 얼굴로 정연히 늘어 선 삼손이의 부대를 일별하셨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삼손이 앞으로 걸어 오셨다.

《차렷!》

삼손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구령을 쳤다.

《사령관 동지! 제 1 련대 1 중대는 당신의 명령대로 도착하였습니다.》

삼손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씩씩하게 보고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친히 삼손이의 손을 잡으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동무들, 몹시 고생했겠소. 누구 앓는 동무나 발을 얼군 동문 없소?》

하고 다정히 물으셨다.

《없습니다!》

삼손이는 단마디로 대답하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한 번 름름한 대원들을 바라 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는 다시 삼손이에게 웃음어린 얼굴을 돌리시며 말을 이으셨다.

《그래 동무가 삼손 동무지요?》

《예! 제가 류 삼손입니다.》

그 이는 삼손의 어깨를 가벼히 두드리시며

《삼손 동무, 내두산 전투 승리를 축하하오, 이번에 아동단원들도 데리고 왔소?》

하고 다정히 물으셨다.

《그 동무들은 마안산 밀영에 떼여 두고 왔습니다.》

그 이는 몇 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천히 대원들 앞을 거닐고 계셨다. 그이는 대원들의 얼굴을 일일이 바라 보시며 무언가 명상에 잠기시는 듯 하였다.

이윽고 그 이는 다시 삼손이 앞에 오셨다.

《삼손 동무! 그래 주 춘일 동무를 잘 안장했소?》

《예!》

별안간 삼손이는 목이 메여져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다른 동무들도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특히 동무와 함께 춘일 동무를 꼭 만나 보려고 했는데 참 유감이요.》

그 이는 어딘가 서글픈 얼굴을 지으시며 삼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마치 삼손이를 통해 춘일을 추억하시는듯….

《좋은 동지를 잃었소.》

그 이는 이런 말을 하시며 비통해 하셨다.

매개 대원에 이르기까지 그 이의 고매한 덕성 앞에 삼손을 비롯한 대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감격을 참을길 없어 흙 느끼기까지 했다.

《자 동무들 지쳤겠는 데 좀 쉬시오.》

그 이는 대원들의 심정을 알아 차리시고 화제를 바꾸시였다. 그 이는 삼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오른쪽 큰 귀틀집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바로 이 병영이 동무들의 숙소요. 2 련대 동무들이 있어 좀 비좁겠지만…》

김 일성 동지는 친히 병영으로 들어 가시여 대원들의 잠'자리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였다.

삼손이는 이 순간에 자신을 도리켜 보았다. 매개 대원들의 잠'자리며 일상 생활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대원들이 병영에 들어 와서 배낭을 벗고 있을 때 후방대로 뒤따르던 정철, 룡택이들이 왔다.

그들은 김 일성 동지가 방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떠들며 들어 왔다. 경희가 당황하여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꾹 찌르며 김 일성 동지를 눈'길로 가리켰다.

정철이와 룡택은 그만 당황하여 그 자리에 굳어 버렸다.

《이거 오래 간만이요. 그 동안 많이 고생했겠소. 헤여진지 일년만에 또 만났구만.》

그 이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벼이 흔드시며 반가워하셨다.

정철이와 룡택은 그만 말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럽던 그 이의 웃음어린 얼굴을 감격의 눈'길로 바라 보았다.

지난 해 1월 북만 원정 때 일이 생각났다.

그 이의 병환에 가슴 태운 일이 어제런듯 되살아 났다.

그러며 김 일성 동지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니 저절로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김 일성 동지께서도 그 때 일을 회상하심인지 감회어린 시선으로 다정히 두 사람을 쓰다듬고 계시는 듯 하였다.

《그래 정철 동무, 애인이 누구요?》

그이께서 세 명의 녀 대원들에게 눈을 주시며 쾌활하게 물으셨다.

그 바람에 경희는 얼굴이 확 달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였다.

삼손이가 웃으며 경희를 눈짓하며

《이 동뭅니다. 리 경희 동무라고 사격 명수입니다.》

하고 자랑 삼아 말씀 올렸다.

《이 동무가 경희 동무로구만.》

그이는 만족한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 보시며 반가워 하셨다.

《참 동무와 똑 같은 두 동무가 있었지? 허 성숙, 허 순희 동무들 말이요.》

정철이가 수집어 하는 두 동무를 소개했다.

《참 이렇게 만나니 반갑소. 동무들의 명성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 나는 북만에서 동무들이 산림 부대들과 사격 경기를 한 얘기도 들었소. 참 잘 했소, 평일군은 얼마나 감동되였던지 나더러 혁명군에 참가시켜 달라고 제의까지 해 왔소. 그래 제 10 련대로 개편해 줬소. 이건 동무들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소. 동무들은 정말 우리 나라의 보배들이요.》

김 일성 동지는 사뭇 즐거워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성숙이와 순희는 그 이의 분에 넘치는 치하에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몰라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의자에 앉으시며 성숙에게 또 말씀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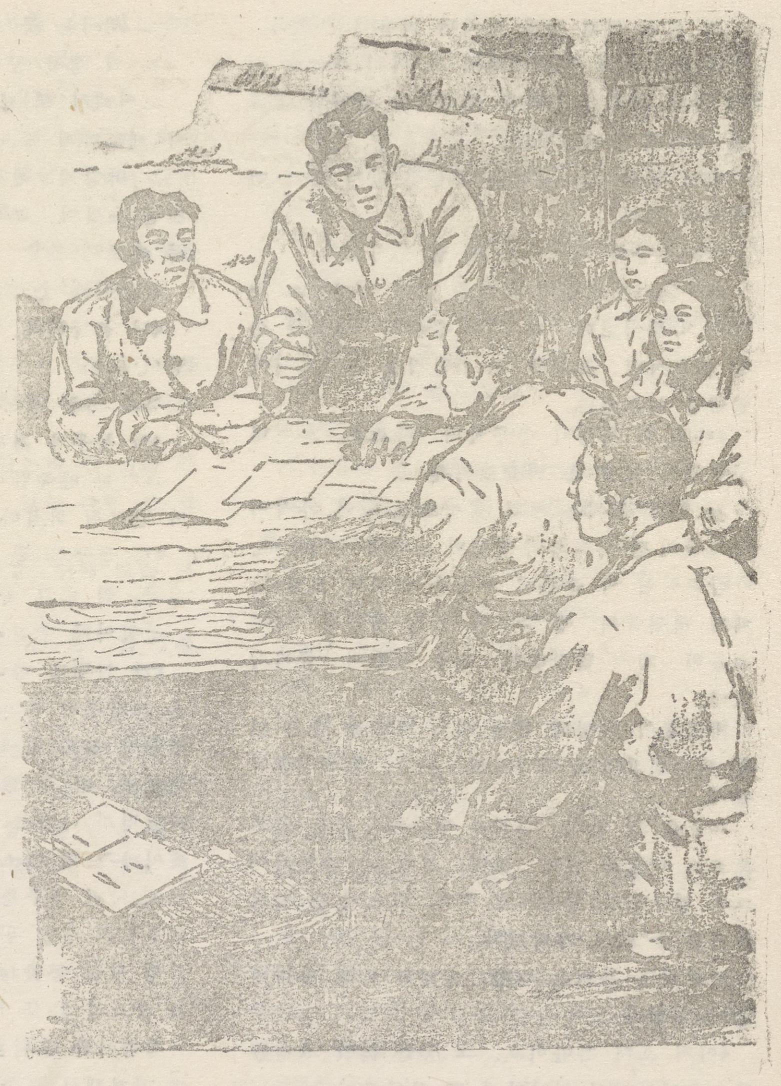
《동문 참 장군이라면서? 보총 두 자루를 한 손에 피눈다더군.》

그 이는 이 녀 동무들을 못 내 대견해 하시면서 그들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원들에게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하여 앞으로의 행동 방향에 대하여 한 시간 남짓이 말씀해 주시고 돌아 가시였다.

그날 밤 삼손이를 비롯한 전 대원들은 김 일성 동지를 뵈온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밤'잠을 잊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2



며칠이 지났다.

그 동안 삼손이 부대는 오태간만에 푹 휴식하였다.

이제는 몸도 거뜬해지고 사기도 왕성해 졌다.

그러던 중 이 밀영에는 단기 훈련반이 조직되였다. 단기 훈련반은 간부들의 조와 대원들의 조로 나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교재는 주로 레닌주의 기본과 당 문헌, 국제 국내 자료, 조선 근대사, 중국 근대사,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 자료 등이였다.

삼손이를 비롯한 정철, 룡택, 관규, 성숙, 경희, 순희 등 10여 명은 따로 당 교양을 받았다. 그들의 교양은 직접 당 조직 과장 김 인범이 책임졌다.

당시 김 일성 동지께서는 적들의 끊임없는 진공과 경제적 봉쇄, 정치적 모략이 강화되는 조건을 구실로 입당 대상자들을 교양하지 않으며 투히는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정치적으로 이미 준비된 동무들까지 당에 받아 들이지 않는 좌경 관문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엄격히 지적하시였다.

하루는 김 인범 조직 과장이 자기가 김 일성 동지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사실 나는 몇 해 동안 지하 당 사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경 관문주의적 오유를 범했소. 그 때 김 일성 동지는 나의 오유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를 어떻게 시정하겠는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소. <…우리 혁명군 전체 성원들 중에 당원은 불과 10% 밖에 안된다.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당의 순결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우수한 동무들도 입당시키지 않는 좌경 관문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지하 당 사업에 있어서는 놈들의 가혹한 백색 테로 하에서 응당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깨여지지 않는 강철 같은 규률로 무장하고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우수한 자들을 입당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하 당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혁명군 부대 내에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인민 혁명군이 창건된지 이미 5년이 지났다. 그런데 무엇이 무서워서 거의 5~6년 동안 무장 투쟁을 통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육성된 동무들을 당에 받아 들이지 않겠는가?

그들의 입당 조건은 이미 성숙되고 구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당 문을 닫아 버리는가? 혼자서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혁명을 성공하자면 광범한 각계 각층의 군중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묶어 세워야 하며 우선 그를 지도할 전위 부대인 공산당을 대중적인 강한 당으로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이다.>이렇게 재삼 말씀하셨소.》

김 인범 과장은 열심히 이야기를 받아 쓰고 있는 10 명의 입당 대상자들을 휘둘러 보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과거 지하당 사업을 하던 방법을 부대내에다 기계적으로 적용시킨 것이요. 현 정세 하에서 지하당 사업도 물론 과거처럼 수공업적으로 관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될 판인데 항차 인민 혁명군 내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요.》

김 인범 과장의 이야기에는 삼손이가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그의 강의를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필기장에 적었다.

그들은 강의를 듣다가도 수시로 일반 정치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중 사업과 선전 선동 사업에 대한 토론은 매우 흥미를 끌었다.

삼손이는 박 재생에 대한 처리 문제가 마음에 걸려 이미 김 인범 과장에게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그에 대한 결론을 조바심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삼손이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과거 파쟁 분자들이나 협애한 민족주의자를 같았으면 벌써 박 재생을 변절자로 처단한지도 오랬을 것이다. 그러나 삼손이는 그를 살려 주었고 점잖게 위로까지 하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김 인범 과장은 삼손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삼손 동무도 우수한 군사 간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옳은 정치적 식견을 가진 간부요. 나는 동무의 제기를 직접 김 일성 동지께 보고했었소. 김 일성 동지께서는 삼손 동무를 몹시 치하하면서 <그것 보오, 삼손 동무의 옳은 태도와 립장을 말이요. 그런데 그 동무는 지금도 공청 생활을 하고 있소. 그러나 사업은 당 사업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요. 그가 얼마나 옳게 행동했소.> 라고 말씀하셨소.》

삼손이는 너무도 뜻 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했다.

김 인범은 박 재생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명철한 말씀을 계속 전달하였다.

…우리들은 무장한 적을 무장으로, 피는 피로라는 구호를 들고 적들과 싸우고 있으며 또 승리하고 있소. 놈들은 지금은 꾀를 써서 우리 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고 책동하고 있소.

그렇다면 우리들도 꾀로써 즉 꾀는 꾀로 라는 구호를 들고 놈들의 요망한 술책을 파탄시켜야 하오.

박 재생 동무의 문제를 놓고 보면 물론 크나 적으나 변절 행위를 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는 겉만 일시 변한 것이지 속은 변질되지 않았소. 비록 놈들에게 체포되여 다소 동요하였다고 해도 실지 혁명 조직에 손실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하오. 그런 동무들은 변절자는 아니요……

삼손이는 김 인범 조직 과장으로부터 김 일성 동지의 말씀 내용을 전달 받으면서 그 이의 현명한 통찰과 고견에 못내 감격하였고 흥분하였다. 그때 단기 훈련생들 중에도 100여 명의 <민생단> 심판을 받은 사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일부 협애한 간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친히 그들을 인계 받아 교양하시였다.

어느날 김 일성 동지는 그들이 모인 가운데서 《민생단》 문건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 100여 명의 동무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이의 말씀을 들었다.

《동무들이 <민생단> 혐의를 받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인 파쟁 분자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오. 우리들은 절대로 파쟁 분자들의 좌경 기회주의적 범죄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이런 현상이

며는 나타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하오. 동무들은 다 선진적 로동 계급의 전위 부대 성원이요. 왜 그런가? 동무들이 만일 진정한 공산주의자나 공청원이 아니였다면 그러한 천대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더우기는 자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오늘까지 혁명 대오에 남아 있겠는가!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알려거든 바로 동무들을 보라고 나는 말하고 싶소.

당 조직 일'군들은 속히 이 동무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당 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소. 공청원이였던 동무들은 당에 받아 드리는 게 좋겠소.》

100여 명의 훈련반 대원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모두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김 일성 동지를 따라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싸울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삼손이는 이렇듯 영명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무한한 긍지와 기쁨으로 한껏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였다.

붉은 5월이 돌아 왔다.

세계 혁명의 위대한 스승인 맑스의 탄생일인 5월 5일이였다. 이 날 밀영은 큰 명절이라도 맞는 듯 흥성거렸다.

이 날 김 일성 동지께서 작성하신 력사적인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이 선포되였던 것이다.

3

1936년 5월 15일이였다.

이 날은 세 쌍의 부부와 현 룡택에게 있어서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날이였다. 이 날 그들은 영광스러운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였다. 그들은 전 날 밤을 뜬 눈으로 밝혔다.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 온 지난 날의 일들을 일일이 더듬어 보며 과연 공산당에 입당할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이였다.

그들은 흥분된 심정을 안고 중대 당 지부 서기 김 호률을 찾아 갔다. 거기에는 벌써 사단 조직 과장 김 인범도 나와 있었다. 그는 동강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내용에 따라 광범한 각계 각층의 조 중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우선 당 대렬을 확대 강화할 과업을 맡고 나왔던 것이다.

김 인범은 앞장 서 들어 오는 삼손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 나 그의 손을 덥석 잡아 쥐였다.

동무들이 자리에 가지런히 앉는 것을 즐거운 얼굴로 바라 보던 인범은 삼손에게 《삼손 동문 30년도에 혁명에 참가했지? 공청엔 그 이듬 해에 들구?》
하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삼손이가 선듯 대답하였다.

《참 어제 같은데……그 땐 나도 공청원이였지……지금도 생각나오 내가 태평구 돌문안에 갔을 때일 말이요. 그 땐 동문 좁쌀친구였는데 이젠 나보다도 키도 크고 나이도 더 먹어 보인다니까. 하하……》

김 인범은 마음이 즐거워져 옛날 얘기를 꺼냈다.

삼손이도 지난 날이 회상됨인지 눈을 슴며시 내려 깔며 나직히 말했다.

《정말 옛날입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빠릅니다. 혁명에 참가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요……》

…한동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낸 그들은 정식 당 회의에 들어 갔다. 김 인범 조직 과장이 사회를 하였다. 먼저 당 지부 서기인 호률이 매개 동무들의 경력과 투쟁 정형을 보고한 다음 이런 말을 덧붙혔다.

《이 동무들은 한결 같이 자기들 입당 보증인으로 주 춘일 동무를 세울 것을 제의한 바 있는 데 토의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이 때 김 인범 조직 과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하였다.

《그 문제는 이미 김 일성 동지께 보고되였소. 그 이께서는 이 동무들의 소원을 막을 수 없다고 하시며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소. 춘일이와 같은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셨소.》

삼손이를 비롯한 일곱 명의 얼굴에는 감격의 기색이 어렸다. 그 이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 올랐던 것이다.

호률은 다시 당 강령과 규약을 엄숙히 물어 본 다음 매개 신입 당원의 결의를 표명할 데 대해 말하였다.

삼손이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결의를 피력하였다. 감격과 흥분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갈린듯 하였다.

《나는 영광스러운 공산당원으로서 조선 혁명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민족과 근로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멸적 계획 1만 명에다가 춘일 동무가 채 완수하지 못한 5천 명까지 합하여 1만 5천 명의 적을 내 손으로 소멸하고 조국 강산에 붉은 기를 휘날리게 하겠습니다.》

삼손이의 뜨거운 음성은 당원들의 가슴을 뒤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모두 열렬한 박수로 그의 입당 결의를 환영하여 주었다.

삼손의 뒤를 이어 룡택이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맑은 두 눈에는 비상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공산당 대렬에 들어서게 된 것은 오직 김 일성 동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김 일성 동지가 안계셨드라면 나는 오늘의 영광도 래일의 희망도 못가진채 억울한 루명을 쓰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령도자 김 일성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래도 힘껏 싸우겠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의 리익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서슴 없이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룡택이의 소박한 결의는 둘러 앉은 사람들의 가슴을 쳤다. 그의 과거를 잘 아는 당원들은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성숙이가 상혈된 얼굴로 일어 섰다. 그는 군복 옷자락을 바로 잡으며 감개무량하여 자기 결의를 이야기하였다.

《동무들, 저는 1936년 5월 15일에 새로 태여난 녀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 부농의 딸이였습니다. 한 때 저는 일부 동무들이 나를 은근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혁명적 지조를 더욱 가다듬었고 용기를 내군 했습니다.

당이 저를 신임하고 영광스러운 자기 대렬에 받아 준다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래도 조국과 혁명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성숙이의 뒤를 이어 일곱 명이 모두 자기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김 인범 동무는 여러 신입 당원들에게 자기들이 결의하고 맹세한대로 끝까지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하였으며 모두다 춘일이처럼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기를 축원하였다.

전체 당원들은 만장 일치로 일곱 동무들의 입당을 찬성하여 손을 들었다.

그들이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대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진심으로 그들의 입당을 축하하였다.

5월의 맑은 창공에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서 유유히 동쪽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다. 산새들도 신이 나서 지저귀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노래하듯 조잘대며 흘러가고 있었다………

(이하 략)



어려운 한'자 말을 쓰지 말자

박 수영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발달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섞여 있는 어려운 한'자말들을 하루 빨리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말 가운데 적지않게 한'자 말들이 섞이어 우리 말을 까다롭고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청년들은 아직도 옛날식 한문투의 말을 그대로 쓰거나 한'자를 되는 대로 맞춰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례를 들면:

《차에 오르다.》를 《승차》로, 《차가 멎다.》를 《정차》로, 《고치실》을 《견사》로, 《가죽구두》를 《피혁화》로 쓰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한'자 말을 쓴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 듣기 어려울 것은 물론 점차 우리 나라 말의 순결성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한'자 말은 한'자말끼리, 한'자말과 고유 조선어 사이에 소리는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 올 때가 많다.

례를 들면:

《수차》라는 하나의 단어는 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차례》, 《물심는 차》, 《물레방아》라는 뜻으로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동무들은 자동차를 청소하는 것을 《세차 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차로 세번 짐을 나르겠다는 말로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까다롭고 힘든 한'자말을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말에서 어려운 한'자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현재 널리 쓰이고 있으나 우리 말에 그것과 같은 뜻을 가진 고유어가 있거나 또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한'자말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청년이 동무들끼리 말을 주고 받을 때나 회의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결빙기가 돼서 배를 타기 힘들걸세.》, 《해빙기에 얼음 우를 다니는 것을 주의해야 해.》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자. 그러나 이것을

《요지음 강이 얼기 시작해서 배를 타기 힘들거네.》, 《강이 풀릴 때에 얼음 우로 다니지 말아야 해.》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고 알기 쉽겠는가.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옛날식 한문투의 말, 일본식 한'자어, 한'자를 되는 대로 맞추어 만든 새로운 한'자어, 그리고 중국 말을 발음만 고쳐서 그대로 옮겨 놓은 한'자어들을 없애는 것이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한'자말을 많이 쓰거나 또 한'자로 된 성구나 속담을 외워가지고 즐겨 쓰면서 이것을 마치 유식한 듯이 생각하고 있다.

례를들면:

《등하 불명이라더니 도무지 깜깜이로구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무너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색한가. 이런 힘든 말은 우리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도무지 깜깜이구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라고 쓰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 힘들지 않은 한'자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보다 더 쉬운 우리 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말을 적극 쓰도록 하여야 한다.

《상의를 입고 나오게나.》, 《동무의 년령은 몇입니까?》, 《내 년령은 십구세예요.》하는 것들은 다 듣기 까다롭고 어색한 말들이다. 그대신 《웃옷(혹은 양복 저고리)을 입고 나오게나》, 《동무의 나이가 몇입니까?》, 《내나이는 열 아홉살이예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아직도 《옷 갈아 입는 곳》을 《탈의실》로, 《봄갈이》를 《춘경》으로, 《가을 갈이》를 《추경》으로 말하는 동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자 말은 무조건 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말에 들어 와서 친숙해진 《방》, 《문》, 《약》 등과 같은 말이나 순 조선 말로 바꾸어 쓰기 힘들거나 또 바꾸어 쓸 필요도 없는 《기술》, 《문화》, 《과학》, 《공업》, 《혁명》등과 같은 말은 앞으로도 써야 한다.

단어의 뜻은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는 신중히 대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한'자말 가운데 그와 뜻이 같은 순 조선말이 있으나 그 뜻이 약간 다를 때에는 한'자말을 계속 쓰는 경우가 있다.

즉 《댁》, 《년세》, 《명함》이라는 한'자 말에는 그와 뜻이 같은 《집》, 《나이》, 《이름》이라는 순 조선 말이 있으나 이 때에 《댁》, 《년세》 《명함》 등은 존경의 뜻이 더 있음으로 웃사람에게 이런 말을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자말을 쓰는 것을 이런 정도에 그치고 그 이상은 쓰지 말아야 한다. 원칙은 순조선말을 중심으로 쉬운말을 쓰는 것이다.

《소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학습하고 설명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대상인 진리를 똑똑히 리해하여 자기의 마음 속에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일로부터 집안 단속과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까지 연구하는 것들이다.》 (류 형원)

《일'군이 되려는 자는 마땅히 쓸모있는 학습을 하고 필요없는 문서를 말며 응당 유익한 말을 하고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리 수광)



혁명 전사의 락관주의

리 형우

혁명 전사의 락관주의란,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어떠한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락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혁명적인 품성을 말한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 교양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용기를 잃고 비관하며 우울해져서는 혁명가로 될 수없다. …**

우리는 패배주의, 비관주의, 우울과 침체를 철저하게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항상 명랑하고 유쾌하게, 용기 백배하여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일정한 사상—의지적 바탕에 의거하고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의 기초로 되는 것은 우선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혁명적 락관주의가 발현되는 것은 바로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리상과 희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 발전 법칙에 철저히 립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를 위한 자기들의 투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신심을 가지며 혁명적 락관주의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또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나아가서 전 세계 피착취 근로 대중과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 위업의 의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조국과 인민, 전체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살며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며 정의는 반드시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정의의 위업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개인의 행복도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두려움과 비겁성을 모르며 영웅성과 락관주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 승리의 필연성, 혁명의 의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혁명 수행의 방도를 파악하는데 로부터 흘러 나온다.

아무리 혁명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하더래도 그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과 방도를 모른다면 혁명적 락관주의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혁명 수행의 방도를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를 위하여 락관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며 그 력량을 조직 동원하는 것이 혁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전체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승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기초하여 발현된 고귀한 품성을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의 락관주의는 그 어떤 난관과도,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성으로 표현되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원쑤들의 철창 속에서도, 단두대에서도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으며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 보면서 끝까지 싸웠다.

마 동희, 권 영벽, 리제순, 박 길송, 최 희숙…등 실로 조선의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목숨을 바치면서도 언제나 투쟁에서 용감하였고 락천적이였다.

최 희숙 동지는 원쑤들의 가혹한 고문에 두 눈마저 잃어 버리고 사형장에 끌려 나왔을 때도 조금도 락망의 빛을 보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절절히 웨쳐 원쑤들의 가슴팍을 서늘케 하였다.

《네놈들의 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느냐, 그러나 네놈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삼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 날이 보인다…》

박 길송 동지도 원쑤들과 치렬한 투쟁을 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장에 나선 몸이였지만 태연하게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불을 토하듯 웨쳤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 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와 같이 혁명 투쟁에서 락천적이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매 걸음 마다에서도 항상 명랑하고 생기 발랄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명절과 승리를 경축했고 시를 쓰고 각본을 만들고 작곡까지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의 이와 같은 혁명적 락관주의는 해방 후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 훌륭히 계승되였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인민군 장병들은 아무리 어려운 전투 정황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았으며 혁명적 락천성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워 이겼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포탄, 폭탄이 터져 아름드리 나무는 동강이 나고 바위마저 부서져 가루가 되는 영웅의 고지, 1,211고지에서 련일 수십차의 전투를 겪으면서도 인민군 전사들의 사기는 언제나 충천하였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여유 당당하였으며 생활은 그대로 락천적이 였다. 전투가 끝나면 전사들은 전호 속에서 유쾌하게 노래 부르며 전투 승리를 기뻐하였다. 이럴때면 어떤 전사들은 시를 지어 읊었고 어떤 전사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전호 속에서 박달나무, 오동나무, 피나무, 자작나무로 각종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도 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비단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뿐만 아니라 전후 방대한 경제 건설 시기에도 훌륭히 발현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초소에서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여도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당이 준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조난 당한 배 우에서 각일각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당과 조국에 대한 굳은 신념 밑에 당황함이 없이 풍파와 싸워 이긴 가진의 영웅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 속에서 발현된 혁명적 락관주의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어찌 이 뿐이겠는가! 《적기가》를 부르며 모진 난관을 극복하면서 288메터의 수직갱을 뚫은 만년 광산의 박 길송 청년 돌격대원들, 추운 겨울 얼음물 속에 뛰여 들어가 가물매기 공사에서 기적을 창조한 강계 청년 발전소 김 진원 청년 돌격대원들, 실로 우리 나라 도처에서는 천리마 기수들에 의하여 혁명적 락관

주의의 모범이 날에 날마다 활짝 꽃피여 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락관주의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는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었으며 5개년 계획도 2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하고 오늘도 방대한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혁명적 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해 내지 못할 일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는 혁명적 락관주의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그들은《무엇 때문에 희생을 내 가면서 혁명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무마시키려고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주의적 행동은 본질에 있어 혁명을 그만 두자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수억만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전횡을 계속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력사는 인민들의 투쟁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혁명에서 승리한 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 전사들은 어떠한 곤난한 환경에서나 또는 혁명이 어떤 희생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혁명적 락천성을 가지고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 락관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현대 수정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훌륭한 미래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데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강의성, 불굴의 투지와 서로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혁명의 승리를 확신한다 하여도 만일 투쟁에서 혁명적 립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와 결심이 부족하다면 승리에 대한 그의《신심》은 공허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난관 앞에서 주저하고 힘든 일에서 물러 서거나 대담하지 못하고 소심하며 동요하거나 의지가 약하고 비겁하며 간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이러한 것들은 혁명 전사들의 품성과는 전혀 배치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상—의지적 바탕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 전사들에게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혁명 전사들 자신의 부단한 사상 수양과 혁명적인 실천 투쟁을 통해서만이 그런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혁명 투쟁의 라침판이며 사회 발전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맑스—레닌주의를 잘 배워야 하며 그를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적 락관주의를 소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 위업을 끝까지 수행한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적 락관주의의 소유자들이였기 때문에 15여 성상의 긴긴 세월을 간악한 일제와 싸워 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 전통을 계승함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일 빨찌산들처럼 싸워 이길 수 있는 고상한 품성을 가질 수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를 소유하자면 문화 정서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 생활과 투쟁에서 기쁨과 희열, 흥분과 감격을 모르고 랭담하고 감정이 매마른 사람에게는 락관주의가 나올 수 없다. 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사람의 생활과 투쟁에는 언제나 정열과 랑만이 흘러 넘치며 그는 혁명 투쟁에서 최대의 정열과 완강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락천적인 혁명 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정서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각종 문학 예술 활동에 적극 참가 해야 한다.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 뛰여 들어 로동 속에서 단련되여야 한다. 오직 로동과 난관과의 투쟁 속에서만 청년들은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할 수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기도를 분쇄하자!

민 수 일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또다시 일제 침략의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있다.

지금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 간에는《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지으려는 일련의 책동이 로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머리를 추켜들고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침략자들의 조작에 의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삼으려고 타산하면서 그들과 아세아 괴뢰들의 결탁을 꾀하여 온 미제는《한일 회담》을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한편 소위《한일 협조》라는 연막 뒤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며 그들이 오래 전부터 꾀하여 온《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교활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에 편승하여 오래 전부터 망상해 오던《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다시 실현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미제가《한일 회담》의 결속을 조급히 서두르게 된 것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 정변과《민정 이양》의 기만극을 연출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 가고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반미 감정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정치 경제적 위기는 수습할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 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을 결탁시키고 일본 침략 세력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수습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지으려는 미제의 책동은 또한 아세아에서의 그들의 침략 정책의 심각한 파탄과 관련된다.

최근 미제는 남부 월남, 라오스, 캄보쟈 등 아세아의 도처에서 련속적인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침략 정책은 총 파산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한일 회담》을 조속히《성사》시켜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키고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군사 블럭을 형성하고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투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비호 하에 간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박 정희 도당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하여 더욱 집요하게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미일 제국주의자들이《한일 회담》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이렇게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박 정희 도당은 미제가 조종하는 대로 옛 상전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푼전이라도 얻어서 자기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며《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한일 회담》을 성취시키겠다고 날뛰고 있다.

안으로는 전고 미문의 폭압과 략탈로 인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과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밖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외래 침략자들에게 2중으로 팔아 먹는 박 정희 도당이야말로 을사 오적을 능가하는 매국 배족의 역적들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박 정희 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 사회의 각분야에 본격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간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60년 전 그들의 선행자들이 쓰던 수법 그대로 《공존 공영》이요, 《일한 친선》이요, 《협조》요, 《경제 협력》이요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경제적 침략을 선행시키고 있다.

《일한 회담》을 재개하기 바쁘게 그들은 박 정희 도당의 안내로 《사절단》, 《조사단》등 명칭을 단 일본 독점 자본의 척후병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국 공업 진흥 회사》, 《일한 경제 협회》, 《일한 무역 협회》등 수많은 독점 자본의 련합체를 조작해 냈으며 《오대산 지대 종합 개발 계획》이니 《전원 개발 계획》이니 하는 침략 계획들을 내걸고 남조선의 기간 산업 부문들을 틀어 쥐려고 광분하고 있다.

일본 독점체들은 《한국에는 현재 미국, 서독, 이태리의 외국 기업이 현저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진출이 늦어지면 이런 나라들에게 진출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서두르면서 일본 독점체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보내고 있다.

그들은 실로 각양 각색의 형태로 남조선의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무역, 금융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으며 략탈의 대상을 샅샅이 뒤지면서 《차관》, 《계약》, 《보세 가공 무역》등 각종 명목으로 침략의 지반을 확대하며 남조선에 대한 강도적 수탈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미쯔이, 미쯔비시 등 일본의 대독점체들을 비롯한 50여 개의 각종 상사들과 회사들이 기여 들어 침략 지반 확대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남조선측과 5억 딸라(괴뢰 정부의 총 외화 보유고의 5배)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것을 급속한 기간 내에 20억 딸라로 늘쿠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일본 상품의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1959년에 남조선에 대한 수출은 3,200만 딸라에 불과하였다면 1962년에는 일약 그의 3배인 1억 9백만 딸라로 1963년에는 다시 전해의 수 배로 장성하였다. 일본 화학 비료 독점체들이 지난 1년 간에 남조선에 팔아 먹은 화학 비료만 하여도 무려 44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일본 상품이 범람하고 왜색이 날을 따라 짙어 가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어선들은 남조선 어장에 함부로 침범하여 하루 평균 《5천 만원이라는 막대한 어물을 도적질》해 가며 1년 동안에 남조선의 년간 어획량의 6배에 해당하는 40만 톤(6천만 딸라)을 잡아 가고 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도 또한 박 정희 도당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한국과 분리된 일본 방위는 있을 수 없다.》고 폭언을 던지면서 벌써부터 《일한 군사 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자국 군인들에게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방위 주재관》의 명목으로 일본 군대를 상주시켜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적 통제 하에 두려는 흉모를 숨기지 않고 있다.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군사 련습이 벌어질 때면 일본에 있는 각종 병력들이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위대》들은 《한국을 전투 마당으로 하고 전투를 한다는 것을 고려에 넣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지금 《공동 방위》라는 구실 밑에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면 즉시 서울에 《군사 아따쉐》를 파견하여 남조선 《국군》의 무기를 수리 또는 보급하며 조종사들을 《위탁 양성》하며 《반공 공동 작전》을 진행하며 비상시에는 조선 해협을 《공동 봉쇄》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친일 주구 박 정희 도당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침략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정치》에까지 이러저러하게 간섭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기간 박 정희의 장기 집권 책동을 적극 비호하며 그를 괴뢰 《대통령》으로 내세워 《한일 회담》을 빨리 결속 지으려고 획책하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표현되였다. 이께다는 《조선 통치 40 년의 경험》을 운운하면서 케네디에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박 정희의 파쑈 통치 연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박 정희 도당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하여 각종 형식으로 정치 자금을 대 주었는바 대규모의 사기 협잡 사건인 《4대 의옥 사건》은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감행되였던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 문화적 분야에도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그들은 반동적인 일본 신문, 잡지, 영화, 류행가를 퍼뜨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 영화계에는 일본 《씨나리오》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출판계에서는 저속한 일본 소설들이 번역 출판되고 있다.

또한 남조선 도시들에는 도처에 일본어 강습소가 나타나고 일본어가 류행되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 단체들이 함부로 드나들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모시고 《동방 요배》를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일본 종교 단체 《창가 학회》와 《천리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재침 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사회의 각 분야에 얼마나 악랄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엄중한 위험이 닥쳐 오고 있다.

만일 범죄적 《한일 회담》의 흉계가 이루어진다면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미일 침략자들의 2중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조국 통일 도상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가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민족적 량심이 있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통탄할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독한 원쑤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과거 일본 통치 36년 간에 악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자원과 재부를 모조리 털어 갔고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실례로 놈들은 수 억만 원의 금과 고귀한 민족 문화 재부를 훔쳐 갔으며 조선 농민들로부터 실로 1억 6천만 석의 쌀을 략탈해 갔다.

관동 대진재 당시 이 야수들은 허위 선전을 퍼뜨려 6천여 명의 무고한 재일 조선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대동아 전쟁》 수행을 위하여 600만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 《징병》, 《징용》으로 끌어 갔으며 수많은 젊은 녀성들을 《위안부》로 전선에 끌어갔다. 그중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였다.

어찌 이 원한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

전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투쟁으로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재침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써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 연세 대학 학생들과 각 고등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만여 명의 서울 시민들의 지지하에 반미, 반일, 반정부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 시위를 단행한 후 그들의 투쟁은 료원의 불'길처럼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에 확대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물러가라!》, 《한일 회담을 중지하라!》, 《매국적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 《지키자, 나의 조국!》 등 구호를 웨치면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 그들은 괴뢰 도당들의 본거지와 일본 상사들을 습격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이 대중적 투쟁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책동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애국적 투쟁이다.

우리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이 정의의 구국 투쟁에 혈연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얼마 전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는 전 민족이 단합하여 《한일 회담》을 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기하고 실제적 조치를 강구하였다. 회의는 이를 위하여 정견과 사상의 차이, 재산의 유무, 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단합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나 기타 형태의 남북 조선 련석 회의를 시급히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회의는 또한 내부 자원과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의 현 파국적인 사태를 수습하며 민생을 구원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취하였다.

이것은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성숙된 문제이며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며 남조선의 현 난국을 시급히 타개할 것을 열망하는 애국적 발기이다.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범죄적 《한일 회담》을 단호히 분쇄하고 이 애국적 제의의 실현을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남조선의 현 파국을 수습하고 민족 재생의 활로를 열 수 있는 길이다.

남북 조선 인민이 힘을 합쳐 결정적 투쟁을 전개한다면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며 일본 사무라이들의 범죄적 재침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야 말 것이며 친미, 친일 주구 박 정희 매국 역도들을 쓸어 버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귀신》을 업어 들이는 자들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종교를 그 앞잡이로 내세움은 상투적 수단이라 하겠다.

지금 일제놈들은 남조선에 저희들의 종교까지 끌어 들이고 있는데 박 정희 도당들은 그 일본 귀신들을 업어 들이는 데 여념이 없다.

원래 일제의 충실한 아들인 박 정희는 지난 날 일제놈들의 《황조》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모셨던 신사를 《단군 숭배소》란 이름으로 슬쩍 바꾸어 놓고 《국력 보호》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일본 종교까지 끌어 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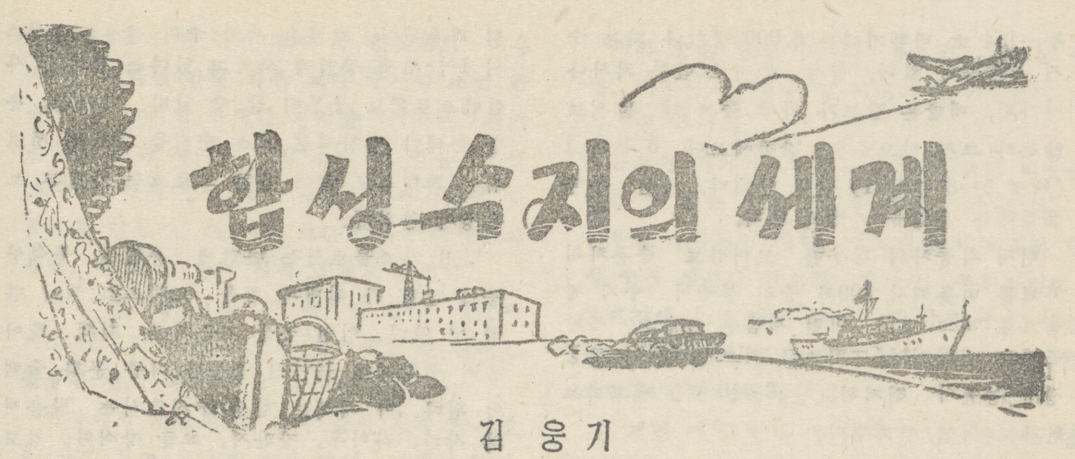
지금 남조선에는 《창가 학회》라는 종교 단체가 있는 데 여기에 모인 자들은 《동방 요배》(일본을 향해 절하는 것)를 하면서 《남무호 렌가꾜》라는 일본말 불교 《념불》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날 일본 사무라이들이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궁성 요배》를 시키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왜놈들이 숭상하는 불교인 《니찌렌꾜》를 믿게 하는 이 《창가 학회》에는 소위 《일본 정계의 거물》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 자들이 지난날 다름 아닌 그 《대동아 공영권》의 열성적인 제창자들이란 것을 고려할 때 이 단체가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도구란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닌가! 또한 이것이 남조선 땅에 뿌리를 깊게 박고 퍼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기 보다도 명백한 일인 것이다.

입으로는 말 끝마다 《민족 혼》과 《민족 정기》를 떠벌리면서도 이렇게 일본 귀신까지 업어 들이기에 미쳐 날뛰는 박 정희 도망들이야 말로 얼마나 용서 못 할 매국 배족의 무리들인가?

놈들은 반드시 인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합성 수지의 세계

김 웅기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자세히 살펴 보자. 매개 사람들에게서 부터 가정, 상점, 뻐스, 뜨락또르, 기차, 선박, 지어 우주 비행선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서나 우리는 합성 수지 제품들을 보게 된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맵시 있고 편리한 비닐 가방이며 비옷, 비누곽… 등 생활 필수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그 어디서나 합성 수지는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그러면 합성 수지란 대체 어떤 것인가?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랜 기간 호박 송진 등 천연 수지를 리용하여 왔다. 색갈이 아름답고 맵시 있는 호박 룰주리며 비녀, 귀걸이는 진귀한 귀중품으로 애용되여 왔다. 그러나 호박은 흔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호박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겠는가를 연구하여 오다가 마침내 그와 비슷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원래 수지란 나무에서 나오는 즙으로서 점착성이 있고 투명하며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 용매에만 녹는 일종의 고분자 유기 화합물을 말한다. 바로 이런 천연 수지와 같은 성질을 가진 고분자 유기 화합물을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합성 수지다.

염이나 산, 알카리 단순한 유기 화합물 등 원자가 하나 혹은 수백 개로 이루어진 저분자 물질은 그 속에 원자들이 적은 관계로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합된 힘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물질은 물이나 불에 쉽게 용해 된다. 그러나 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분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분자들 속에서 그것들의 호상 작용하는 힘이 강해지고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는데 이처럼 수천, 수만, 수억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물질을 고분자 화합물—수지라고 한다. 이런 고분자 물질은 불이나 물에 녹지 않으며 기계적으로도 아주 강하다.

합성 수지로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가소물의 강도를 연하게 하는 가소제, 가소물의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을 좋게 하여주는 충전제, 각가지 색갈을 내게하는 착색제 등 각종 첨가제들을 사용한다. 이런 첨가제들을 어떻게 혼합하는가에 따라 합성 수지가 강철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혹은 고무처럼 연해지기도 하며 열에 잘 견디어 내는 성질도 가지게 되며 빨갛게도 노랗게도 된다.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 수지는 19 세기 초엽에 발견된 페놀 수지이다. 20 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부터 새로운 합성 수지들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는바 지금에 와서 그 종류는 수십 종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합성 수지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리용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합성 수지는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다양하며 내마모성 내화학성이 강하고 훌륭한 절연체이며 광학성 성질도 아주 좋다. 또한 가공하기 쉽고 그 원가도 매우 낮은 그런 특성으로 하여 오늘 합성 수지는 벌써 금속, 목재, 유리, 보석, 도자기, 가죽, 모직물 등을 대신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 하였던 새로운 분야로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최신식 로케트 비행기며 우주 비행선에도 합성 수지로 된 부속품이 수 없이 많은바

뚜—104 호 비행기에는 6,000 종이나 되는 수지 부속품이 있다. 합성 수지로 만든 치차나 베아링, 메달은 강도가 아주 높고 잘 닳지도 않는바 그의 마모률은 강철제보다 3 분의 1 (때로 5~8 분의 1) 밖에 안된다. 이런 부속품들에는 윤활유가 필요 없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승용차의 차체를 비롯해서 300여 종의 부속이 수지 제품으로 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가볍고 제작 공정도 간단하여(프레스로 찍으면 된다)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약 3~10 배) 제고되고 원가도 훨씬 저하된다.

앞으로 합성 수지 공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계 부분품들이 수지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바 이미 세계 수지 생산량이 유색 금속의 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15~20 년 후에 가서는 철을 포함한 모든 금속의 생산량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 앞으로 합성 수지 공업의 전망을 잘 말해주는 실례로 되는 것이다.

합성 수지로 만든 강한 접착제로는 수지 제품들은 물론 철판도 견고하게 붙일 수 있다. 례를 들면 단면이 1 cm^2 되는 철봉을 에폭시 수지로 붙힌 것은 4 톤의 무게에도 그 접착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접착제의 발전은 머지 않아 공업에서 용접과 리베트 치기를 없애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을 몇배나 헐하게 할 것이다.

합성 수지는 가장 훌륭한 절연체로서 전기 부속품으로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실례로 전동기의 절연물로 규소 수지를 쓰면 300~600 도의 온도에서 1,000 시간 동안 계속 가동하여도 타지 않는다. 또한 수지로는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도 만들 수 있고 기름을 쓰지 않는 변압기도 만들 수 있다. 그외에도 텔레비죤, 라디오, 까벨선, 스위치…등의 제작에서도 널리 쓰인다.

합성 수지는 내화학성이 강함으로 화학 공장 들에서 설비들의 안붙침, 각종 도관 특히 산을 취급하는 장치들과 저장 땅크, 수송 배관 등에 내산 내알카리 자료로 리용된다.

또한 합성 수지는 훌륭한 건재로서도 광범히 리용된다. 그것은 세계 수지 생산량의 3분의 1이 건재 공업에 쓰이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패밥, 톱밥 등에다 접착제로 노소 수지를 30 % 정도 섞어 프레스로 눌러 만든 브로크는 가볍고 보온성이 강하다.

이런 가소물로서는 단번에 응접실, 목욕탕 등이 달린 한 세대의 집을 프레스로 찍어 만들 수 있다. 이런 집을 기중기로 척척 들어 올려 접착제로 붙이면 훌륭한 다층 문화 주택이 된다. 이 외에도 합성 수지로서는 방음제와 샤판, 타이루, 장판지, 고급 장식판, 도료 등 건재로 리용된다.

합성 수지는 농업에도 광범히 리용된다. 례하면 랭상 모판용 수지 박막을 들 수 있다. 모판에 수지 박막을 리용하면 막대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유리보다 투과성도 좋고 자외선도 잘 통과시키므로 종자 발아는 평균 2 일 단축되고 모가 자라는 비률도 180 %나 높아져 건모를 속한 시일내에 낼 수 있게 하여 알곡 증산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특수한 수지를 논판에 약간 뿌려주면 논판 우에 엷은 막이 덮혀져 논물의 증발을 방지하며 생육에 필요한 온도를 보장함으로써 벼 수확고를 제고할 수 있다.

합성 수지로는 수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그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그물은 썩지도 않고 다루기도 좋다. 이런 그물에다 고기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색들을 착색시키면 어획고를 훨씬 높일 수 있다.

합성 수지의 발전은 의학 분야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뼈가 부서진 사람에게 인조 뼈를 만들어 넣어주며 인조 혈관 수술용 실 등도 수지로 만들어 낸다.

합성 수지로 수술 도구를 만들어 쓰면 아픔도 덜하다. 특수한 수지로 된 수술용 실은 체내에서 저절로 흡수되기 때문에 수술후 실을 뽑는 고통을 환자가 느끼지 않아도 된다. 관절염 환자에게 특수한 합성 수지제 옷을 입히면 병이 완쾌된다.

또한 합성 수지는 식료, 의약, 방직, 희유 금속의 정제 등 인민 경제 각 부분에서 리용된다. 례하면 만일 이온 교환 수지에 소금 물을 통과 시키면 막대한 전력을 써가며 전기 분해를 하지 않아도 가성 소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수지 층에 보통 물을 통과시키면 증류수를 얻는다. 또 이온 교환 수지는 의약품의 정제, 분리, 사탕의 정제 등에도 쓰인다.

노소 수지를 스프직에 먹이면 천이 꿋꿋해지고 구김이 가지 않으며 습기에도 잘 견디는 훌륭한 천이 되며 색도 잘 날지 않는다.

이상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합성 수지로는 맵씨 있고 문양도 고운 비닐 카텐이며 가방, 구두, 비누곽 등 각 가지의 일용 필수품들이며 학용품, 가구 식기류, 완구류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한 제품들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를 《합성 수지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합성 수지의 중요한 원료는 석탄, 카바이트, 원유 및 여러가지 농산물과 그 부산물 등이다.

한톤의 카바이트에서는 3,300 벌의 비옷을 만들 수 있는 염화 비닐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석탄, 석회석을 비롯해서 합성 수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무진장하다. 그러기에 우리 당은 지난시기 합성 수지 생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이미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는 년산 6~8 만 톤의 합성 수지를 생산하게 될 것인바 가방 하나 만드는데 100 그람의 염화 비닐, 비옷 하나에는 300 그람 즉 200 만벌의 비옷을 만드는데 600 톤의 비닐이면 충분하다고 할 때 이 때에 가서 합성 수지 제품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때에 가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합성 수지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 ☆ ☆

청년생활 소사전

번개가 칠 때에

구름과 구름, 혹은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번개가 칠 때에 보이는 불 꽃은 뢰전류의 통로이다. 이 불꽃을 통하여 흐르는 뢰전류를 측정한 데 의하면 가장 큰 것은 무려 20만 암페아에 달하며 대다수 경우에도 2만 암페아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번개가 칠 때 뢰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락뢰(벼락)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제생활

남부 월남에서 녹아난 미제의 절망적 발악

송 선학

지난 2월 21일 미국 대통령 죤슨이 북부 월남과 중국이 《남부 월남에서 대단히 위험한 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방한 후 워싱톤과 사이공에서는 악마구리 끓듯 《북진》 소동을 일으켰다. 워싱톤에서는 《적극적인 진격이냐, 퇴각이냐》를 결정할 때가 왔다느니 해상과 공중으로 《하노이를 봉쇄》하라느니 《베트콩(인민 무장대를 말함—필자주)의 보급로》를 치라느니 와짝 떠들었으며 지어 남부 월남 괴뢰 느구옌 칸까지도 상전들의 나발에 흥이 나서 《힘으로 베트콩을 북으로》 밀어 제끼겠다고 떠벌렸다.

미국 출판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워싱톤과 사이공이 《쟁개비 끓듯》하는 때에 죤슨은 2월 24일 설리벤이라는 《직업적인 외교관》을 두목으로 하고 미 국방성 공보원 및 중앙 정보국의 악명 높은 호전광들을 망라시켜 소위 《남부 월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작전을 조절》하기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죤슨의 지시에 따라 직접 남부 월남에 기여 들어 전쟁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타진》한 맥나마라는 《북부 월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포함된 보고를 죤슨에게 제출하였다.고 떠들어댔다. 남부 월남에서 감행하는 《특수 전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인도지나에서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의 이와 같은 전쟁 확대 소동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 ×

죤슨은 남부 월남에서 대단히 곤난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사태하에서 필사적인 구제책이 취하여 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영국 신문 《옵써버》) 남부 월남에서 계속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더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죤슨은 《생애에서 가장 엄중한 결정》(《로이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미제는 민주 월남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남부 월남에서 처한 난국에서 빠져 나가려 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인민을 위협해 보려고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2년 말까지 남부 월남에서 1만여 개의 전략촌을 설치하여 《베트콩》을 인민과 고립시키고 《완전 소멸》하겠다고 하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다. 1963년은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더욱 더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거듭함으로써 침략자 자신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장 불행한 해》로 되였다. 《남부 월남을 상실한다는 것은 동남 아세아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덜레스의 야망을 그대로 되풀이 하면서 미국 호전광들은 2만여 명의 군대를 투입하고 매일 200만 딸라를 탕진하면서 남부 월남 인민 탄압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인민 무장대는 전투를 통하여 수만 명의 강철 같은 대오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은 400만의 대오로 장성하였다. 인민 무장대는 《무장함에 충분한 최신 무기를 가지》(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게 되였으며 유격전을 아주 《능숙하게》 할줄 알며 《정치와 군사, 전술을 솜씨 있게 결합》 (영국 신문《내슈널 가디언》)시킬줄 알게 되였으며 적의 정예 대대까지 소멸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강화되였다.

태평양 지구 미 륙군 사령관 코린스는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의 신출 귀몰하는 전술을 인정하면서 《남부 월남과 같은 형편에서는 적(인민 무장대를 말함—필자주)을 발견하기 곤난하다.》고 비명을 올렸다.

1963년에 무장대는 약 1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적군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700여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또한 인민 무장대는 《전략촌》의 70%를 완전히 파괴하고 800 만 명의 주민을 해방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인도지나를 아세아의 《반공 체계》에 인입하려던 미제의 아세아 침략 계획은 총파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을 창조하려던 미제의 환상은 일장 춘몽으로 화하였다.

인민 무장대의 심대한 타격 앞에서 적들의 내부는 극도로 와해되였다. 작년 1 년간 인민의 편으로 넘어 온 괴뢰군 수는 7만 3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뉴욕 타임스》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공의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군대들의 탈주를 방지하는 것》으로 되였다.

공포에 싸인 미군 내에서도 《전쟁에 싫증》나 하는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부 월남에서 이와 같은 군사적 패배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하였다.

작년에 남부 월남의 각지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반괴뢰 투쟁과 특히 8월부터 남부 월남 괴뢰 당국이 실시하는 종교 탄압 정책을 반대한 불교도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광범한 주민 계층을 망라하는 반괴뢰, 반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사태는 미제로 하여금 자기의 괴뢰를 교체하여 인민의 반미 기세를 무마하는 한편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10월 23일 남부 월남에 《유엔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한 미제는 11월 1일 손때 묻은 느고,딘, 디엠을 새로운 군사 괴뢰로 교체하였다. 12월에는 국방 장관 맥나마라가 사이공에 기여 들어 인민 탄압을 위한 《1964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종전의 분산적인 소부대 작전을 대부대로 집결하며 항공, 땅크보다 보병을 위주로 하는 《대 기동 작전》으로 《1965 년까지 남부 월남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이 맥나마라의 새로운 《계획》은 작년말부터 금년 초에 걸친 메콩강 류역 전투에서 첫 타격을 받았다. 인민 무장대는 이 전투를 통하여 1963년 상반년 기간에 거둔 것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금년 2월 1일의 두번째 쿠데타로도 미제는 이 패배를 만회할 수 없었다.

인민 무장대의 활동은 사이공 시내에까지 깊히 침투되여 미국인 영화관, 경기장, 학교와 술집 지어 미군 병영을 계속 폭파하였다. 2월 한 달 동안에만도 벤 트레, 미 토, 타이 닌주들에서 인민 무장대는 3천여 명의 적병을 소멸하고 71 개의 《전략촌》을 파괴하였으며 29 대의 적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에서 미제가 시도하는 발악적인 전쟁 확대 음모야말로 무모하기 짝이 없

는 시도이다. 2만 이상의 군대를 투입하고 직승 비행기와 함선을 끌어 들이고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면서도 남부 월남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한 미제는 전쟁을 북부 월남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 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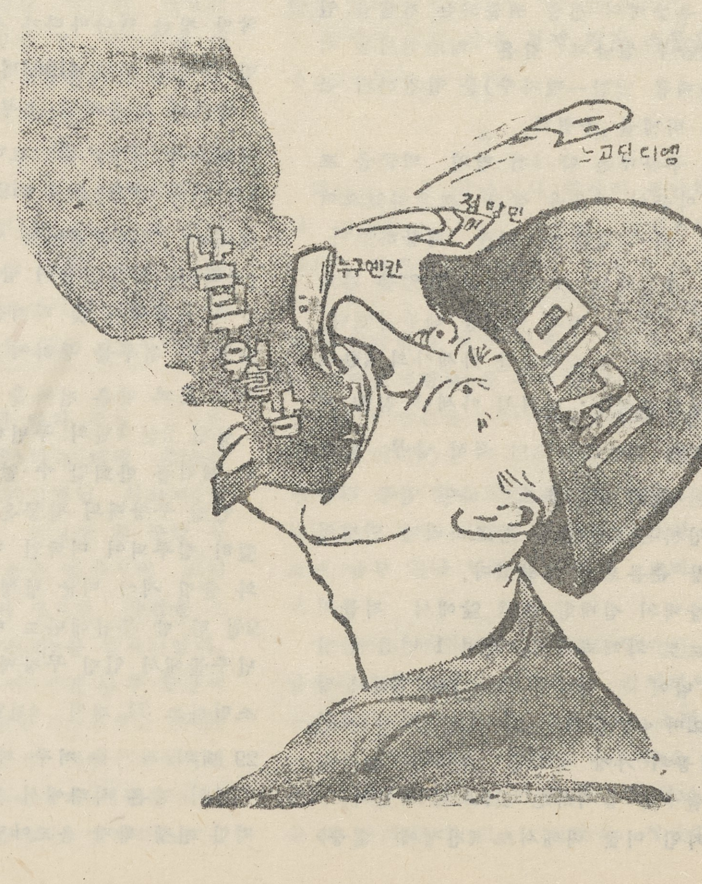
불란서 신문 《리베라숑》은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아세아에서 최신 무기로 장비된 북부 월남군을 반대하여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민주 월남은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튼튼한 일원으로서 월남 혁명의 근거지로, 성새로 거연히 서 있다.

미제는 응당 조선 전쟁에서 당한 쓰라린 패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제는 그 어떤 소동으로써도 남부 월남 인민을 놀래울 수 없다. 다년간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 미제를 몰아낼 수 있다는 신심으로 충만된 남부 월남 인민은 미제의 갖은 위협 공갈을 박차고 더욱 투쟁 기세를 높이고 있다. 바로 전쟁 확대 소동과 함께 기여든 맥나마라가 메콩강 삼각주를 《시찰》 비행할 때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그의 호위기를 메콩강에 거꾸로 처박아 넣음으로써 맥나마라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3월 초에 남부 월남 각지에서 벌어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반미 반 괴뢰 투쟁은 남부 월남 인민들이 미제의 전쟁 확대 책동에 더욱 견결히 맞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시도는 전체 월남 인민과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물론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분노를 격증시켰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쫓겨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억제할 수 없는 력사의 벅찬 흐름이다.



먹기는 고사하고 이발만 부러진다 (화살에서 전재)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 재 경

맑스-레닌주의 고전이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로작들을 말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여야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체득하고 과학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도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은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공산주의 등 광범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 사상 리론적 내용은 지극히 심오하고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 광범한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단꺼번에 다 연구하거나 단시일 내에 다 파악할 수는 없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일생 동안 부단히 해야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여 우선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당면하게 필요한 것으로부터 연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우리 청년들이 우선 연구하여야 할 고전들은 어떤 것들이겠는가?

우선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기초를 이루는 저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례를 들어 맑스주의 철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나 엥겔스의 《반듀링론》, 레닌의 저작들인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철학 노트》등을 반드시 연구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자본론》 (1편 상품과 화폐), 엥겔스의 《반듀링론》 (2편 정치 경제학편)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엥겔스의 《공산주의 원리》, 《공상으로부터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과 레닌의 《맑스주의의 세가지 원천과 세가지 구성 부분》 등은 과학적 공산주의 학습에서,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자연 변증법》, 《원숭이의 인간에로의 전화 과정에 있어서 로동의 역할》 등은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로작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정책을 학습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필요한 로작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연구할 때에는 레닌의 로작 《쏘베트 정권의 당면 과업》,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 쓰딸린의 《레닌주의 제문제》 (레닌주의 기초),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을 연구할 때에는 레닌의 《협동 조합에 관하여》, 《현물세제에 관하여》 등을,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연구할 때에는 《프로레타리아 문화에 관하여》, 《당 조직과 당 문학》을, 당 건설에 관하여 연구할 때에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사상적 기초를 천명한 《무엇을 할가?》, 당의 조직적 원칙을 밝힌《일보 전진 이보 퇴각》 당의 전략적 원칙을 규명한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사회 민주 당의 두 가지 전술》, 맑스-레닌주의 당의 리론적 기초를 옹호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기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고

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온갖 반맑스주의 리론과의 투쟁에서 맑스의 《고타 강령 비판》, 엥겔스의 《반듀링론》은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

레닌의 많은 로작들은 수정주의를 비롯한 반동 사상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레닌의 론문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맑스주의와 개량주의》등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폭로하는 선고문과 같은 의의를 가지며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다는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본질을 날날이 단죄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자기 전공 부문과 밀접히 관련되는 고전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전공에 따라 각이하다. 례를 들어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은 자연 과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동무들의 필독 문헌이며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력사를 연구하는 동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문헌이다.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전 학습에 대한 관점과 립장, 태도를 옳게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는 고전을 학습함에 있어서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며 어떤 리론적 명제를 암송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사상과 내용을 우리 혁명 실천과 결부하여 연구하며,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결부하여 연구하며, 우리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사상적 무기, 혁명적 방식을 얻기 위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이 이러한 혁명적 실천, 이러한 전투적 임무 수행과 동떨어져 진행될 때 그것은 반드시 교조주의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고전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고전을 신비화하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부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고전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그 학습에 달려 붙지 않고 있다. 물론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은 각이한 력사적 시기와 환경속에서 씌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명과 지명을 비롯한 많은 고유 명사들과 이에 반영된 문제와 사건들이 생소하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고전의 연구는 소설이나 어떤 력사적 기록을 읽는 것처럼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고전들은 인류 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리론이기 때문에 당의 령도 밑에 실지 혁명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리해 못할 것은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은 진리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탐구심을 가지고 달려 붙는 청년들에게는 충분히 리해될 수 있다.

그러면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실지 로작을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

처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연구할 고전에 대한 선택이다.

우선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자기 력량에 맞는 로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학습 지도자나 선배들의 방조와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이나 철학, 정치 경제학 또는 력사 과목 학습에서 국가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철저히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학설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고전을 연구할 과업을 세웠다고 하자.

연구자는 이미 우에서 말한 기준과 지도자의 조언에 의하여 레닌의 저서 중에서 《국가와 혁명》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떤 체계로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매개 고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체계가 있다.

첫째로 그 로작이 씌여진 력사적 환경과 저자가 그를 집필한 목적을 해명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 로작의 구성과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며 세째로는 그 로작이 가지는 리론 실천적 의의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체계에 의하여 《국가와 혁명》의 연구 과정을 더듬어 보자.

1. 로작 《국가와 혁명》이 씌여진 력사적 환경과 집필 목적.

중요한 고전들의 첫 머리에는 대체로 저자가 쓴 서문(머리'말)이 붙어 있다. 《국가와 혁명》에도 이러한 서문이 있다. 이 서문에서는 이 로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필자가 이를 집필하는 목적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연구자는 이 서문을 잘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습 지도자의 방조와 참고 문헌 또는 사전 등을 통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1917년 8~9월 레닌이 《국가와 혁명》을 쓴 이 시기의 력사적 환경은 로씨야의 혁명적 로동 계급이 낡은 부르죠아 국가 제도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레닌이 이 로작을 쓴 목적은 로씨야 및 서구라파의 혁명 경험을 총화하고 국가에 대한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반동적 리론을 분쇄하며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었다는 것을 해명한다.

물론 연구자는 여기에 요약한 그러한 단순한 연구에 그칠 수 없다.

연구자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국제적으로 이 시기의 력사적 환경을 상세히 인식하여야 하며 레닌이 이 저작의 서술에서 내세운 목적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학습장에는 우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상세한 필기 내용이 수록된다.

2. 이 로작의 기본 내용

이것은 로작 연구의 기본 과정이다.

《국가와 혁명》은 그 저작된 시대와 환경이 다르며 사상이 심오하고 표현이 집약적이며 많은 인물의 활동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내용 연구의 첫 행정은 주의를 집중하고 모를 말과 걸리는 문제는 표식을 해가면서 우선 로작 전반을 독파하는 것이다.

로작에 나오는 어려운 술어, 생소한 사건, 인물, 인용문 등은 《주》와 참고 문헌을 보며 지도자에게 물어서 인내성 있게 해결하며 리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스쳐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매개 장 별로 순차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그 기본 내용을 파악한다.

제 1 장 《계급 사회와 국가》에서 연구자는 국가에 대한 맑스, 엥겔스의 사상을 옹호 발전시키고 있는 레닌의 론증을 통하여 국가는 상용될 수 없는 계급적 모순의 산물이며 그것은 다수 피착취 계급에 대한 소수 착취 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도구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이리하여 까우츠키,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의 국가에 관한 반동적 리론의 본질을 파악하고 낡은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폭력적 혁명으로 전복할 데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을 인식하게 된다.

제 2, 3, 4 장에서는 맑스, 엥겔스가 1848년~1851년 혁명 경험 특히 1871년 파리 콤뮨의 경험을 총화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순차적으로 해명한다.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는 낡은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청산하고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과 온갖 맑스주의의 적들이 맑스주의 학설에서 주되는 것인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학설을 거세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제 5 장에서 프로레타리아 국가가 조락하는 경제적 기초를 해명하고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허위성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며 제 6 장에서 맑스주의를 비속화 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죄행을 알게 된다.

이러한 분석적 연구에 기초하여 국가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을 서술한 《국가와 혁명》의 기본 사상을 파악한다.

이리하여 로작의 전반적 체계와 기본 내용이 대략 파악되면 다시 연구를 하면서 발췌를 한다. 로작의 체계와 기본 내용을 파악함이 없이 처음부터 발췌하는 것은 그릇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교조적으로 형식적으로 학습하는 버릇을 붙이게 한다.

발췌 방법은 로작의 성격과 학습 목적에 따라 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 절, 대제목, 소제목을 달면서 기본 체계와 내용을 요약하며 질서 정연하게 서술해 간다. 로론과 연구에 필요한 대목은 상세히 기록하고 또는 원문대로 발췌한다. 이에 로작의 페지수

를 밝혀둔다.

발췌 내용의 분량도 연구자의 준비 정도와 그 연구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로작에 정통하고 수준이 높은 연구자는 그 발췌 분량을 훨씬 주릴 수 있다.

그러나 초학자들은 로작의 전문을 거의 원문대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발췌하는 편향과 장, 절 제목에 그치는 지나치게 적게 필기하는 편향을 모두 극복하여야 한다.

초학자들의 발췌는 원문의 전반적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정도로 되여야 한다. 자기가 특히 관심을 돌리고 감흥을 느낀 대목,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들은 기본 내용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도 빼 쓰는 것이 좋다. 학습장에는 여백을 두어 그 후 지도 받은 내용과 연구한 자료, 토론의 체계, 참고 문헌의 이름과 페지 수 인용할 대목의 표식, 연구자의 소감 등을 추가 기입하도록 예견하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 따로 카트를 작성할 때에는 오랜 후'날에도 잊지 않도록 로작과 론문 명, 장, 절, 페지 수 등을 밝혀야 한다.

3. 《국가와 혁명》이 가지는 리론 실천적 의의.

이 대목도 로작에는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고전 원문을 잘 심사숙고하면서 연구하면 이 로작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에서와 우리 혁명 실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가히 알아 낼수 있다.

자체로 그 리론 실천적 의의를 구명해 본 후에 학습 강사나 참고 문헌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리하여 《국가와 혁명》의 연구자는 레닌이 이 로작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리론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옹호 발전시키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사상을 철두 철미 천명하였다는 것을 인식한다. 레닌의 이 로작은 오늘도 국가에 관한 부르죠아 리론과 부르죠아 국가의 초계급성을 설교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부인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 분쇄하는데 거대한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전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학습을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광범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지한 토론과 론쟁은 집체적 지혜로써 로작 내용을 더 잘, 더 넓고 깊게 리해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오래'동안 기억하게 하며 리해에서 잘못된 점을 제때에 고칠 수 있게 한다. 또한 진지한 토론과 론쟁은 토론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본 문제에 대한 확고한 주견을 가지게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주며 사고력과 발표력을 키워 준다.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동무들 앞에 출연하여 그들의 학습을 도와 주는 것도 고전을 학습하는 동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남을 배워주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또한 학습 방조 과정은 곧 훌륭한 복습 과정이며 자기 지식의 검토 보충 과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전 학습에서 중요한 문제는 학습한 내용을 자기의 생활과 실지 사업에 옳게 적용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의 지침이며 혁명 투쟁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고전 학습이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되지 말고 자체의 사상 수양과 실천 행동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청년 생활 제 5 호 (루계 176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5월 4일 발행 1964년 5월 9일

ㄱ—430221

값 45 전

책 소 개

청년 전위 (하)



저자 림 춘추

판형 국판

예정 페지 500페지

발행 민청 출판사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그 높은 혁명 정신이 훌륭하게 형상되여 우리들을 그처럼 흥분시킨 림 춘추 저 《청년 전위》(상)의 속편이 머지 않아 출판된다.

《청년 전위》(하)에서는 혁명의 거세찬 불'길 속에서 머슴'군으로부터 으젓한 유격대원으로 자라난 주인공 류 삼손을 비롯한 그의 전우들이 그 후 공청 생활을 거쳐 영예로운 공산당원으로, 유격대의 능숙한 지휘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면모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돈하현과 연길현의 분수령인 하발령 남쪽 지대에서 적들의 군용 렬차를 습격하여 원쑤 일제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는 통쾌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청년 전위》(하)에서는 상상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처창즈 근거지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 모습을 비롯하여 류 삼손, 조 정철, 박 관규 등 청년 전위들이 일제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더욱 대담 무쌍한 의지력을 가지고 불멸의 위훈을 세우는 여러 전투 모습들이 감명 깊게 이야기 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김 일성 장군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항일 유격대원들의 조국에로의 진군과 주인공 류 삼손을 비롯한 세 공작원들이 국내 공작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는 모습들을 흥분 속에서 읽게 될 것이다.

《청년 전위》(하)는 간악 무도한 일제와의 싸움에서 15 여 성상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오직 조국의 광복과 혁명 승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온 1930년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모시고 승리한 조국에로 개선하는 장면에서 끝나고 있다.

이 책은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1930년대 조선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혁명 정신을 체득하는 투쟁과 생활의 고귀한 교과서로 될 것이다.

Life of Youth

(정 기 간 행 물
번호 제 13653 호)



5월의 청년 공원에서